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성탄을 맞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12월 14일 (토) 제 1996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크리스마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고통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가 기쁘지 않았던 적이 없다. 엄마가 된 이후로, 나는 우리 가족이 맞을 이 명절 시즌이 어떨지 항상 큰 기대를 하곤 했다. 몇 년 전, 마침내 두 아이가 기저귀에서 벗어났고 그 덕에 나도 뭔가 에 십 분 이상 집중할 수 있게 되자, 그해 12월 성탄절을 온전히 즐기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아들의 유치원 크리스마스 파티와 딸의 크리스마스 합창 연습 사이에 나는 동네 극장에서 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 참석을 계획했고, 이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기, 진저브레드 하우스 만들기 (축제 음악이 배경음으로 깔아서)까지 모든 일정을 잡았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가족은 교회의 성탄절 전야 예배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정말로 멋진 성탄절이 될 게 분명했다.



달은 것이다.

마리아의 불편한 크리스마스

그해 크리스마스 축제에 관한 나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나는 같은 엄마로서 좋은 동반자가 곁에 있음을 깨달았다. 마리아는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최초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크리스마스가 펼쳐진다는 의미였다(누가복음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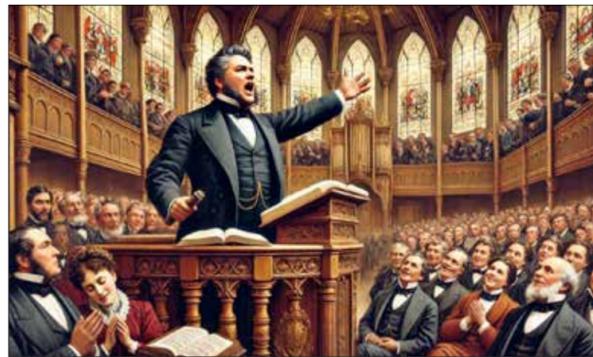
마리아는 처녀로서 임신했고,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천사의

특별한 개입까지 필요했다(마 1:18-25). 로마제국 전체에 인구 조사를 명령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산달이 다가온 마리아로 하여금 가장 힘든 때에 길고도 힘든 여행을 하게 만들었다. 아이를 낳을 방을 찾지 못한 요셉 부부는 결국 첫째 아들을 마구간에서 낳았고 동물 여물통 곁에 눕혔다(눅 2장). 그녀의 크리스마스는 지저분하고 불편했다.

마리아의 첫 크리스마스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또한 그녀가 바랐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 그대로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을 통해 드러났고, 천사의 광파르와 함께 비천한

목동들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다. “너희에게 구주가 나섰으니 그는 그리스도이시요 주이시니라”(11절).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니라”(19절)라고 성경은 적고 있다. 힘든 여정과 그녀가 겪은 수고가 고통스러웠을지 몰라도, 마구간에서 낳은 이 작은 아기에 대해 선포된 복음의 좋은 소식은 실로 소중히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결코 마리아가 원하거나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에 관해서였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좋은 소식에 관한 것이었다. (3면으로 계속)



설교에 유머가 필요할까?

웃음은 의로움의 가장 밝은 무기로 우울함과 죄를 깨닫는다

찰스 스펠전 시대에 사역과 웃음, 즐거움이 섞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복음주의자, 특히 개혁파 복음주의자는 유머 센스와 동떨어진 인물들로 평평이나 있었다. 스펠전은 그의 자서전에서 아마도 그들에게 열두 번째 계명이 있다면 그건 “너희는 주일이면 우울한 얼굴을 하라”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

스펠전은 그런 추세에 맞섰다. 그는 재치 있었고, 그 점은 그의 설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위대한 스펠전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 이룬 복음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자기 자신까지 대단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건 전혀 아니었다. 설교에 대해 말하자면, 스펠전은 “잠시 웃음을 유발하는 게 30분 동안 깊은 잠을 자도록 하

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다. 스펠전이 강단에서 했던 재치 있는 발언에 반대했던 한 교인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하고 싶은 유머가 많았지만 내가 얼마나 자제했는지 당신이 안다면, 지금 나한테 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의 자제력을 칭찬했겠지요. 내가 정말로 조심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교인들의 배꼽이 빠지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스펠전이 유머를 함부로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깊고 진지한 진리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지나친 웃음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을까? 스펠전 평전에서 톰 네틀스는 이 설교의 황태자가 유머를 복음의 미끼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유머 감각이라는 걸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9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2면



푸른초장 강기봉 목사 4면



베드로진서 김경진 목사 7면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제30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THE 30TH DISCIPLESHIP TRAINING LEADERS SEMINAR

국제제자훈련원 남가주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운다

대상 담임목회자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

주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2025년 5월 5일(월) - 5월 10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등록 \$475 dmi.sarang.com

조기등록 3월 10일 마감 (\$420)

문의 714-635-3000

시론

양쪽에서 달려오는 기관차 둘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탄핵(彈劾)이란 단어의 일반적 사전의 정의는 '죄상(罪狀)을 들어서 책망함'이라는 뜻이고, 법적실명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 공직자들의 위법...'

계엄(戒嚴)이란, 군사적인 필요나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나 전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이라는 설명을 요즘 언론을 통해 듣고 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탄핵이 너무나 남발되어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공중과 매체와 수많은 SNS를 통해 들려오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극도로 양분화되어 마치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두 열차의 충돌 직전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경을 뛰어넘은 미디어와 SNS의 활발한 활동은 어느 쪽이라 할 것 없이 난지도에 쏟아져 부어지던 쓰레기처럼 끊임없이 파고들어온다. 눈앞의 문제인 탄핵과 계엄이라는 이슈가 서로를 향해 사탄이라는 호칭도 거침없이 사용하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몰려와 쌓이고 있다.

뉴스를 들으면, 한국 사회에는 온통 끌어내려야 할 사람과 쫓아내 버릴 사람, 집어넣어 버릴 사람 심지어 죽여버려야 할 사람이라는 소리만 들려오는 것 같다. 교계에서도 때론, 기도하자는 권면도 비슷음 거리가 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는 부탁도 비겁한 신앙으로 치부되어버리는 시대이다. 결국 작금의 한국사회의 현실은 로마서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

모든 비난의 손가락 다섯 개는 전부 남을 향하고 있는 시대, 비난 받을만한 곳을 가리키는 검지손가락이 펴질 때 나머지 손가락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꺾여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텐데...

40년을 살았던 한국 땅에서 한창 젊을 때 오늘날과 유사한 시간을 경험해보았다. 유신시대를 어렵듯이 경험했고, 군인으로서 12.12와 5.18이라는 특별한 날들을 경험했다. 4.19는 어려서 몰랐고 6.29(6월항쟁으로 인한 특별선언)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지만, 3.10(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미국에 사느라 체감온도가 낮았다. 그런데, 옛그제였던 12.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발달한 SNS덕분에 실시간으로 황당함을 느껴보면서 양쪽에서 달려와 충돌해버릴 것 같은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미국동포로 서있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그러나, 사회는 좀 더 성숙해져야 할 것 같다. 목적과 방법들이. 미국의 넓은 길들을 보며 멀리 앞을 내다보았던 100여년 전 마차 타고 출근하던 당시 도로담당 관계자들의 안목을 생각해보자. 적어도 '영원'이라는 무한대의 시간을 이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100년 전 미국 도로개발 관계자들의 안목 정도라도 갖추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을 통해 잘 분별하자. 양쪽 모든 분들은 다 불만이겠지만 이 말씀으로 시론을 맺어야 할 것 같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djlee7777@gmail.com

출애굽은 신화인가?

고고학적 및 역사적 증거로 나타난 생생한 역사 속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언급된, 전 세계인이 아는 중요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거기에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 추정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일반적인 회의론까지, 출애굽의 역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결과 출애굽 사건은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발생한 여러 번의 역사적 사건 중 일부를 모아서 하나로 편집한 이야기, 즉 신화 내지 전설로 여겨진다. 출애굽의 역사성에 반대하는 흔한 주장 중 하나는 그 사건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적 및 역사적 증거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믿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집트 내 히브리인

이 중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히브리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집트로 이주하여 거주했다는 주장이다. 넓은 의미에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가나안에서 온 셈족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북동부 나일 삼각주 지역(고센)에 정착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는 특정 형태의 도자기, 매장 관습, 도구 및 무기, 비문, 역사 기록, 레반트 양 품종, 벽화, 심지어 수입된 신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게다가 출애굽 이전 이집트에 히브리인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다. 기원전 17세기경 테베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 브루클린 35.1446에 담긴 이집트의 가정 노예 목록에는 요셉처럼 새로운 이집트 이름을 부여받은 30명 이상의 셈족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창 41:45). 히브리인과 관련된 다른 이름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지

역에서 발견된 스카라브(Scarabs, 풍뎉이 모양의 일종의 부처) 속 야굽-엘(야쿠브)이라는 이름과 데이크 엘-바리 지역에서 찾은 깨진 도기 조각 속 아마도 예세(유사이)라는 이름은 출애굽 이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집트에서는 또한 셈족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광범위한 노예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아모세 1세와 18왕조의 건국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 무렵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다(출 1:8-14; 5:4-19). 이 노예화 과정에는 진흙벽돌 생산,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농업이 포함되었다. 히브리인 노예 제도에 대한 기록은 18왕조 초기에 진흙벽돌로 지어진 대규모 저장 시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라메세스(텔 엘-다바)와 피툼(텔 레타베) 지역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었다. 또한 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강둑에 지어진 이집트 왕궁과도 일치한다(1:11; 2:5-10; 행 7:20-22).

출애굽과 바로의 날짜

하지만 출애굽의 역사성을 확인하려면 탈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명백한 단서와 미묘한 단서,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열왕기에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첫 해인 기원전 967년경이 출애굽 이후 48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왕상 6:1). 이는 사울이 등장하기 약 50년 전인 기원전 1100년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이미 300년이 지났다는 입장의 주장과 일치한다(삿 11:26). 또한 출애굽에서 성전 건축

지 19세대가 지났음을 알 수 있는데, 각 세대를 평균 25년으로 잡으면 약 475년이 된다(대상 6:33-37).

또한, 고대 근동의 여러 사원에 헌납된 비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태양년을 세었다는 정보를 확인한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질적인 시간표를 기록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우리는 성전 건설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합리적으로 출애굽 시점을 대략 기원전 144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탈출 기록을 뒷받침하는 외부 증거를 특정 시간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시점에 해당하는 이집트 역사를 보면, 아멘호텝 2세가 막 파라오가 되었다. 그의 전임자 투트모세 3세는 40년 이상 통치했다(출 2:23; 4:19; 7:7; 행 7:30 참조). 이는 출애굽 이야기에 맞는 다른 사건들과 함께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역사적인 탈출이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고대 이집트 문서, 비문, 고고학적 발견물 역시 파라오의 첫째 아들의 의문의 죽음, 군대의 쇠퇴, 나일 삼각주에 있는 왕궁 포기, 하트셉수트의 몰락 시도, 그리고 가나안으로의 노예 습격을 암시한다.[5] 게다가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의 사제이자 역사가인 마네토는 아멘호텝(아메노피스)을 히브리인 탈출 당시의 파라오로 지명했다. 더욱이 "이푸웨르의 훈계"라는 흥미로운 이집트 시는 출애굽 당시 재앙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출애굽과의 이 모든 연관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3면으로 계속)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배너 & 헌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강사 이훈구 장로 약력>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감사나눔 공동체: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광고 문의
(323)665-0009 | (718)886-4400
info@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아가페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1. 지원 요건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후 미국에서 담임목사 및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분으로 만 55세 미만인 분
2. 제출 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포함)
2)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3) 목사안수 증명서
4) 최근 설교 2편 (온라인 링크)
5) 추천서
3. 서류 제출 마감일 2025년 2월 10일
4. 유의 사항
1)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3) agapenskim@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 첨부 file 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덴버제자교회 2대 담임목사 청빙 공고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위치한 덴버제자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미국장로회 서남노회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에 속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국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본받아, 2004년 7월 11 일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섬겨온 교회입니다.
2025년 담임목사님의 은퇴 일정으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위에서 바른 성경적 리더십과 복음적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새로운 2대 담임목사님을 청빙 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이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이중언어(한어/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미국내 체류 및 목회활동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목사 안수 후 북미지역에서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 // 소정의 양식은 덴버 제자교회 웹사이트 (denverjeja.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목회계획서 1통, 자필 이력서 1통, 신학교 졸업 증명서 1통
소속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목사 안수 증명서 1통, 추천서 1통,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영상 1편
제출마감 // 2025년 2월 28(금)일까지 (미국 산지시간)
보내실 곳 // 이메일 : denverjeja8390@gmail.com
우편 주소 : Choong Joh, 9249 S. Broadway Suite 200, Room 379 Highlands Ranch, Colorado, 80129
배달사고 방지를 위해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이메일로 접수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 제출된 서류는 청빙 심사에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청빙 활동이 마치는 즉시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모든 문의와 안내는 denverjeja8390@gmail.com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덴버제자교회 청빙위원회

크리스마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1면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틀린 기대

수년이 흐르고 사역에 들어간 예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었지만(미가 5:2) 그들이 찾던 지도자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왕(요 6:15)이었다. 또한 로마를 몰아낼 "능력"과 "위엄"이 가득한 "목자", 나아가서 "땅 끝까지"(미 5:4) 위대함을 미칠 메시야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복하는 영웅으로 이스라엘에 오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로마의 압제자들을 전복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상의 군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는 육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도 않았다(사 53:2-3). 미움 받고 중상모략당하고, 멸시 받았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린 기대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야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그들은 메시야를 보면서도 거부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요 1:11).

하지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나라가 지상의 어떤 왕국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스도는 "능력"과 "위엄"으로 가득

되는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위대한 것, 즉 그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더 좋은 선물

내가 아직도 그해의 12월이

신 선물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노래와 파티, 그리고 각종 성탄절 행사를 뛰어넘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마리아에게는 불행한 크리스마스가 한 번 있었다. 구유에 누운 아기의 불행과 고통, 그리고 결국에 맞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러나 마리아가 맞은 그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모든 불행한 죄인



하고, 그의 나라는 "땅 끝까지" 확장되어 있다. 참으로 영원한 나라이며, 예수님은 그 나라의 임금이다. 그의 백성의 궁극적인 죄와 죽음, 그리고 아버지와의 분리를 완전하게 물리친 분이다. 그리고 그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달랐더라면 하는 바람을 가질까? 파티와 합창 공연을 놓친 것에 대해서 또 한 달에 걸친 각종 질병과 눈물을 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해에 만난 크리스마스, 그리고 산산조각이 난 나의 기대는 실로 주님이 예비하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좋은 소식에 관한 것임을 나는 그 해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새롭게 깨달았다.

by Ann Swindell, TGC

목회단상

"누구랑 같이 가십니까?"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사로 "사모님 고생이 많으시지요"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아버님께서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고통의 세계'이니 누구나 인생 살며 고생 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고생이 아니라 그 고생을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남편 만나서 함께 목회하면서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잘해주고 보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이 너무 들어서 '결혼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뒤돌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당케 하셔서 잘 살고 잘 감당하고 있다고 회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리안나 허핑턴(Arianna Huffington)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그 상황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고생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생을 통해서 더욱 자신을 발견한다는 말에는 공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누구나 힘들고 고생스런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모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고생을 남보다 더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생에 대한 생각을 좀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이 좀더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홀로 임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창 1:27)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기본적인 사실만 잊지 않고 살아도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조력자까지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 인지요. 물론 여기서 조력자는 반드시 여자(아내)란 의미는 아닙니다. 남자(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이라"(시 119:7)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고난 속에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듯 "어려운 위기나 고난을 겪어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독선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결국은 고난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대하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좋은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요 15:13-15).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해 주실 동행자이기도 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울고불고 탄탄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Word4u@gmail.com

더 나은 신학자가 되고 싶은가?

(2면에서 계속)

하지만 같은 시기에 이집트 밖에 있던 이스라엘인에 대한 추가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처음에는 유목민으로, 그다음에는 가나안의 정복자이자 정착민으로 말이다.

히브리인의 방랑과 가나안 출현

일시성과 취약한 문명으로 인해서 고대 역사 속 유목민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 발굴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멘호테프 3세의 솔레브 사원에서 "야훼의 유목민"을 언급한 두 개의 이집트 비문은 기원전 1400년경,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이에 방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비문은 이집트인들이 신의 개인 이름(야호와)과 이스라엘 사람들, 즉 고대에 여호와를 경배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출애굽 후 약 40년이라는 시기,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었던 이들의 위치, 그리고 유

목민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방랑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출 5:1; 민 14:14).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나타나 많은 도시를 정복하고 그 지역에 정착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성과 날짜와 관련된 증거는 파라오와 여러 가나안 왕들이 교환한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마르나(Amar) 편지라고 불리는 실형 문자판은 전쟁을 벌이고 무력과 교활함으로 도시를 점령하는 외부인 집단인 하비루(Habiru)를 언급한다.

또한 이스라엘 정복과 관련된 파괴의 고고학적 증거로는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여호수아서 이야기에 언급된 주요 도시들과 관련한 대규모 화재 파괴, 무너진 성벽, 약탈 없음, 그리고 기원전 1400년경의 오랜 방치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 후로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정착 증거는 독특한 건축, 도자기, 식단 및 종교적 전통을 가진 새로운 집단이 가나안에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기원전 13세기 후반의 메르넵타 석비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파라오에 의해서 언급된 가나안 유일한 집단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과 더불어 다양한 많은 발견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에 대한 성경적 서술의 역사적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다.

by Titus Kennedy, TGC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h3>		<h4>뉴욕목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 2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트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창년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세례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265-2584, www.lkcby.org 14 Green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창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 204-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354</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 (Fax: 김경호),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6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 6:00(토)</p> <p>Tel: (516) 387-9940, 9942 El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창년예배: 오후 12: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p> <p>Tel: (718) 706-0100, www.nypc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창년예배: 오후 1:30 세례기도회: 오전 5:55(월-토)</p> <p>Tel: (718) 762-2525, 5756, www.hyo 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창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dogchurch.org 308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창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5 전교인분반별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8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창년예배 오후 3:20분 세례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p> <p>Tel: (347) 513-1351, ch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68</p>	<h4>은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nnuri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nc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낮 12:00,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 584-5780, www.pccvo.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ívo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3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오찬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5:00</p> <p>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l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 33-3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ajara MEX(멕시코)</p>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도미틸라(Domitilla) 카타콤베

주일 예배에 참석한 손님을 카타콤베에 모셔다드렸다. 성 밖, 아피아 안티카(Appia Antica)로 가는 길 주변에는 카타콤이 여러 군데 있다. 그중 제일 오래된 곳, 도미틸라 카타콤으로 AD120경부터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본래 이 지역은 도미틸라의 개인 소유지였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사

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길이가 15Km, 묘지는 약 15만이다.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이래, 약 250년 동안, 열 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AD81-96) 황제다. 네로 황제가 원로원으로부터 자살형을 선고받고 삶을 마루

리하자, 네로의 근위대장으로 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었다. 그의 두 아들 중, 장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투스 장군(후에 황제)이고, 둘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형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사촌이며, 영사인 클레멘트가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바로 도미틸라이었다. 그 부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독실하다는 의미는 구원의 확신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다. 어느 시대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사람과 참민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표피적으로는 비슷하고 구분할 수 없지만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세상은 어떤 작은 일 앞에서

나팔을 불고 요란하게 쾅과리를 울리지만, 참 성도는 그런 일에 크게 패념치 않는다. 이유는 가치관이 다르고 특히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영사 클레멘트의 부인, 도미틸라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손녀딸로, 클레멘트와 결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황제(삼촌)가 양자로 들여 후계자로 삼았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모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제정 로마 시대의 황제는 현대의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을 누렸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에게 사촌 클레멘트 부부가 로마제국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기독교 교도들은 대

단한 집단을 형성하지 못했던 시기이었다. 그런데 황실에서 전통적으로 섬기는 다양한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래서 사촌 부부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예상외로 완강하게 황제의 명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황제는 진노하고 말했다. 황제의 권위가 손상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영사 클레멘트는 사형에 처했고, 질부 도미틸라는 섬 폰자(Ponza)로 귀양을 보냈다. 그리고 조카의 입양은 파양하고 말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을 누렸던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에게 사촌 클레멘트 부부가 로마제국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기독교 교도들은 대

주인공 중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 세상이냐? 주님이냐?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찬 신앙인들을 찾으려고 하셨는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를 섬리하시자 추풍낙엽처럼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그중에는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다. 거둬나지 못하면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확신이 없으면 언젠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카타콤의 지하에 들어가면 천장과 벽은 온통 쇠꼬챙이로 흠을 파낸 흔적이 2천 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말하는 것 같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렇다면 당신은? chiesadiroma@daum.net

기/도/칼/럼

하늘에 살다가 하늘로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지난 가을 우리 교회 예복대학 소풍의 날이었습니다. 어린 신들이 단풍만끽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설렘 속에 일찌감치 모여들었습니다. 화기에애한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화목한 소풍, 건강한 소풍, 활기찬 소풍을 외치며 간식 주머니를 들고 버스에 분승할 때,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린이가 같았습니다. 떠나시는 어르신들을 배웅하며 하늘을 바라보니, 그렇게 파

랏고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고마비의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의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감동의 물결 속에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청명한 하늘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공을 마음껏 나는 새들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감사 찬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을 하늘도 저

렇게 눈부신데,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바울은 말로 가히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밧도섬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지개 보좌가 펼쳐진 하늘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생각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곳에 가리라는 천국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미래에 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후편에 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극히 높은 지성소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보좌 후편에서 주의 얼굴을 뵈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歸天)'이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달이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가슴에 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세상 소풍 끝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받은 땅

에 붙이고 살지라도, 마음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히 11:16) bible66@gmail.com

푸/른/초/장

강기봉 목사
(뉴욕백민교회 원로)



'아가'는 구약성경 스물두 번째로 총 8장으로 된 책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Song of Songs(노래 중의 노래), 또는 솔로몬의 노래라 했다. 우리 말로 '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라는 뜻을 가졌다. 구약성경 중 두루마리 책으로 불리는 다섯권(오축) 중 한 권으로, 이스라엘의 5대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유월절에 낭독되던 책이다.

하느라 피부도 타서 거무스름했다(1:6). 본문의 솔로몬은 여인을 볼 때 외모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제 본문이 말하는 솔람미 연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로 하나됨을 고백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4:9)'

칼로 물베기라 한다. 진정한 갈등은 오히려 더 크고 깊은 열매를 맺는다.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의 갈등의 결과도 여인의 집안이 크게 식견을 넓히며 왕실과 인연이 맺어짐을 본다. 갈등은 성숙을 위한 좋은 요소다. 사랑은 영원을 향한 과정이다.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여정인 것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왕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하나 됨에 대한 열망과 끊을 수 없는 미련 속에

의 도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도리와 본질적으로 같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정을 이루고 60년 70년 무한대로 함께한다. 이 동안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알아가는 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목조목 배워가고 확인해 간다. 인내와 희생, 겸허함, 섬김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한다. 어쩌면 그렇게 참을까, 어쩌면 그렇게 떠나버리지 않고 같이 할까!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용하게 남긴 것도 없는데, 오히려 부족하고 실수 투성이 짓을 많

하와를 통해서 성과 그 범위는 인류 모든 세대를 통해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하셨다.(창 1:20-25). '아가'에서도 남녀간의 성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다(2:6등). 남녀 두 사람을 하나되게 하는 데에는 성이 매개체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전하게 지켜살고, 부부간의 부부됨을 쩌하게 영위하는 데는 이 성도덕이 지켜져야 함이 필수 조건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께 중매(고후 11:2)' 했다고 했다. 그만큼 성은 신성한 것이다. 요즘 현대세계가 다방면으로 급속히 전락해 가는데는 이 성도덕의 붕괴가 큰 요인이 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의 주목과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출산율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그릇되게 운용하는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아가 1장-8장

이 책은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그렸다. 솔람미 여인을 묘사한 용어 중에는 꽃, 나무, 때로는 동물들까지 등장한다. 최고 수준의 여인으로 묘사한다. 아름답고 섬세한 감성의 흐름이 있다. 그런데 솔람미라는 여인의 이름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 후기 편집자들이 사용한 것 같다. 솔람미도 이스라엘의 평범한 시골일 것이다. 아가서는 청춘 남녀의 순수하고 지고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저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원한 관계를 나타낸다. 솔람미 여인은 백성을 대표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믿고 싶다. 8:6 외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지만 사실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아끼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다. 그에 비해 솔람미 여인(백성)은 예쁘게 보이는 면도 있으나, 일관성이 아쉬운 모습을 드러낸다. 본문이 말하는 솔람미 여인은 도시 여인들처럼 얼굴을 가꾸는 여인도 아니고, 그저 햇빛 아래 일

먼저, 1:1-3:5은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이 연인 시절 가졌던 열렬한 밀회와 벽찬 그리움을 말하는 내용이다. '바위 틈 남 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2:14)' 서로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대해 때로는 직설적이고, 때로는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로 찬사를 보내고, 뜨거운 연정을 고백한다. 결혼 약속과 기다리는 설레임을 숨김없이 표현한다. 다음 3:6-5:1은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의 장엄하고 화려한 혼인예식 광경과, 초야의 기쁨을 노래한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를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4:1)' 눈에 보이는 신부가 아름답고 아름답다! 온 마음으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 몸은 보는 것이 같고 하는 말이 같고 가는 길이 하나다.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은 이것이 기쁘고, 많은 사람은 축복했다. 다음 5:2-8:14은 결혼 초 두 사람이 일시적인 갈등을 겪게 됨을 보여준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낫고도 하려무나(5:8)'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사랑이 함께 하면서 항상 좋은 때만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때가 있다. 등을 돌릴 때도 있고, 남보다 더 미울 때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만남, 특히 결혼 관계는 얼른 아물어야 한다. 부부간 갈등은

산 사람이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은 천명에 이르는 여인들을 왕래하였지만, 그런 중에도 한 여인과의 지고한 사랑의 관계를 사모했으리라 믿고 싶다. 그 마음이 '아가, 솔로몬의 노래, 사랑을' 쓰게 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 하나됨을 이룬다. 이것이 창조적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2:16,6:3, 사62:4-5,고후11:2, 계19:7-9)' 하나님은 창조적부터 사랑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그 사랑과 영원토록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실 것을 작정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남녀가 부부되어 삶의 여정을 함께 가계하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부부

이도 했는데 그저 함께 한다. 알고보니 꼭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과 같다.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은 없는데도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향해서 짝 사랑하는 분으로 보인다. 부부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며 흥내라도 내기를 힘써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인생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질박하게 사랑하셔서 430년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를 유월절에 낭독하는 것이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선물이다. 처음 인간 아담과

아가서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이 썼다. 그가 천명의 여인들을 통과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달고 쓴 일을 겪으며, 한 분 하나님을 영혼 깊숙이로부터 자신을 깨우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아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았다. 이 마음이 그로 잠언과 전도서를 쓰게 하고, 이제 아가를 쓰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솔람미 여인과의 관계로 승화시켜 이 책을 썼다. '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렸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에 부합되게 살자! 우리는 귀하고 복된 존재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놀랍다. 감사드립니다! kangki bong@hot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안에 번져나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 회복 운동! In God We Trust부터 시작!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모토가 있는데요, 바로, "In God We Trust"라는 미국의 National 국가 모토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미국의 National Motto가 유행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16년 동안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현 바이든 행정부 아래 셀 수 없는 반기독교적 악법들이 무성해지면서 결국 그 결과물은 미국의 근본적 청교도 뿌리, 교회의 권위가 흔들렸다는 것을 2024년 대선의 Red Wave를 분석하는 여러 조사를 통해 관찰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정치"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조롱하며 "기독교 신앙만 위협"하는 정책들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본질이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이 일어난 것이 한가지 이유입니다.

둘째, "정치"라는 명목 아래, 정치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을 건드린 건데, 바로 "학부모의 권리"입니다. 특별히, 오바마 때 통과된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과 왜곡된 정체성 교육에 이어, 지난 4년 동안은 Transgender 아이디얼러지 세뇌 교육의 결과로 실제로 자녀를 잃어버린(목숨을 잃은) 학부모들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공교육이 미국의 역사를 왜곡시켜 가르친 결과로 어린 자녀들이 사회-공산주의 막시즘 사상을 "좋은것/선한것"으로 세뇌되어 자녀들이 학부모를 거부하고, 대신 정부가 자신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황당한 정치적 논쟁에 학부모 시민들은 What wrong?! 이라는 질문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TVNEXT 같은 미 단체들과 손잡고, 미국의 본질 회복운동이 필수임을 깨닫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공립학교 건물부터 시작하여, 차량에 이르기까지 In God We Trust 국가 모토와 American Flag(국기)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이번 2024년 대선의 결과를 기뻐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Transgender와 정체성, 성교육, 막시즘 교육 등을 학교에서 빼게 할뿐 아니라, 그런 교육을 계속하는 State들에게는 연방 재정을 멈추겠다는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본질 회복에 대한 여러 계획들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In God We Trust"를 통과시킨 가장 최근의 사례 중 하나는 올해 5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의회가 주립학교에 "In God We Trust"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86:10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공화당 전체와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 한 명을 제외한 민주당 전체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텔라웨어 주 공화당 소속의 톰 패스트 하원의원은 국가 모토를 학교와 공공 건물안에 올리는 것이 헌법적이라는 어떤 사람의 무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In God We Trust 는 우리의 국가 모토이며, 미국에 사는 그 누구든, 공립학교와 고등 교육 기관에 우리의 국가 모토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onstitutional (헌법적인) 것이다."라고 속 시원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루이지애나주는 작년에 이미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미국 국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나 뉴욕같이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에서 가르쳐지는 사회공산주의 사상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을 막고자, 이미 미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법도 제정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In God We Trust 를 주립학교와 공립학교등에 배치하도록 한 주들: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외에도, 텍사스와 사우스다코타, 알라바마, 아리조나, 인디애나, 미시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등 20개의 주입니다. 그의 알칸사스와 조지아주 오하이오는 시민들의 donation을 받아서 display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In God We Trust 미국 국가 모토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국가 모토가 수 세기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In God We Trust"라는 모토는 미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국가 모토는 미국 애국가인 "The Star-

Spangled Banner"의 오리지널 시, Francis Scott Key(프란시스 스콧 키)가 쓴 "프렌치 요새의 방어"의 네 번째 구절에서 영감을 얻은 문구입니다.

4번째 줄 안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And this be our motto: 'in God is our trust.'"라고요.

미국 애국가도, 국가 모토도 미국의 건립 아버지들의 청교도 정신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립 아버지들은 모든 분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것을 그들이 남긴 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모토의 배경은, 아름다운 봄날에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In God We Trust 는 남북전쟁 중이던 1864년 미국 주화에 처음 등장했지만, 공식 국가 모토로 선포된 것은 1956년입니다.

거의 무신론자 국가였던 소련과의 냉전이 한창이었던 1954년, 미국은 그때도 "국가 충성 서약"인 The Pledge of Allegiance안에, "Under God"이라는 용어를 추가시켰고, 1955년에 의회는 모든 미국 화폐에 국가 모토(In God We Trust)를 인쇄하도록 연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전에는 "In God We Trust"가 있었지만, 1955년 연방법으로 통과시켜 미국 화폐에도 "In God We Trust"가 프린트가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2023년이 67번째 기념일)

일년후, 1956년 7월 30일, "In God We Trust"를 미국의 공식 National 모토로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하며, "In God We Trust"를 국가의 공식 모토로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본질 회복은, 이땅과 국가의 주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오렌지 카운티의 한 소도시에서 목회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1.5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 경험도 부족하는데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 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에나하임 힐에서 Hong 목사

목회자가 생명을 걸어야 할 2가지

A: 목회에는 성공이 없고 승리(Victory)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섬김(service)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을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회 중에 오는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시험을 이기어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돌보기를 집중하면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에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목회에만 전력하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회의 에너지가 너무 땀 데에 소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 4:15)도 했습니다. 저는 목회의 승리를 위해 2가지에 생명을 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말씀 묵상과 연구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1979년 런던에서 목회자 약 600명을 모아놓고 강연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전부 다시 한다면 자신이 했던 것보다 세배는 더 공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설교를 많이 하고 너무 적게 공부했습니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의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 7: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말씀묵상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눅 24장의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구약성경을 잘 풀어 설명해 준 것처럼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explaining the Scripture)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성경 본문 해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설교는 동시대적이어야 합니다. 현대 세계와 공명하고 청중이 처한 상황에서 현실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성경본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의 상황에 민감한 방식으로 본문을 연결하여 다루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목사들의 약점은 성경강해는 잘하나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는 면에는 아주 약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베스트셀러도 사서 읽어야 하고 오늘의 역사와 문화 감각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것을 이중적인 경청(Double listening)이라 불렀습니다. 그림과 동시에 설교자는 열정적이어야(passionate) 합니다. 설교자는 지성과 감성이 연동되고 명쾌한 사고와 통찰력 깊은 정서가 결집되어야 합니다. 리차드브룩스터는 "먼저 빛(말씀의 빛)이 난 다음에 열(성령으로 불붙는 열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자신을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지키는 성경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거룩한 인격과 삶에 유익하기 위해 거룩과 경건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는 50년이 넘도록 자신의 사역을 이어 갔는데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명멸하는 와중에도 그는 독보적인 존재로 최고의 도덕성을 유지하며 우뚝 서있었습니다. 빌리그레함 단체는 캘리포니아 모데스토(Modesto, 1948)에서 47기 필수사항을 선언문으로 채택하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최고의 도덕성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단체나 다른 단체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둘째, 주어진 재정을 책임있게 가장 높은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완전히 공개한다. 셋째, 직실을 말하며 모든 통계(특히 집회 숫자)는 정직하게 발표한다. 넷째, 아내의 다른 여자와 단 둘만의 자리를 갖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성적 타선이 가져올 행동은 특별히 조심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with columns for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사망교회, 세계선교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강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교회를 찾습니다.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자충수?

12월 3일 22시 반경 대한민국을 필적 뛰게 만드는 대사건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155분 만에 수습이 되긴 했으나 그 여파는 끝을 모르게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해프닝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엄중하게 대통령을 때어버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지나가는 강아지를 부르듯 최소한의 존중도 담기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불리며 하야와 탄핵이라는 막가는 단어들이 붓

물어 터지듯 외쳐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락파락하는 잘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지만 하다. 법을 전공한 대통령이다. 거기에 여소야대다.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190석이 넘는 야당연합이 계엄이라는 업포에 지레 기가 죽어 벌벌 떨 것이라 여겼을까? 예상대로 야당은 기민했다. 차가 막히니 내려서 뺨박질을 했고 문이 막히니 답을 뛰어넘

으며 국회로 모여들었다. 정족수가 채워지자 일사분란하게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는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무효가 되었다며 박수를 쳤다. 잘난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희희낙락하며 자화자찬의 박수를 쳤다. 여기에 의구심이 든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국무위원 혹은 그 보좌진들은 거대야당의 막강한 위력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만약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어차피 못 먹 을 감이니 이판사판하며 찢러 본 것이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충수에 싸대기를 맞아도 싹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내비친 정황들을 들으면 연민도 생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 막혀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해 버린 비애로 야당에게 짓밟히고 있는 지령이의 꿈틀꿈이 계엄선포라는 무리수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비장한 당위성들 뒤에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숨겨둔 비장의 한 수

가 준비되었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피지기(知彼知己)도 모르는 바보와 멍청이들에게 국정을 맡긴 더 미련한 국민이라는 자조를 면키 어려운 까닭이다. 고려의 마지막 군주였던 보장왕은 막리지 연개소문과 그의 아들들에게 놀린 허수아비에 불과했으나 668년 나라가 망하고 당나라에 항복할 때는 그의 입장을 짚어야 했다. 왕이라 불린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왕다운 왕 노릇을 하지 못했음에도 그는 망국의 왕 즉 망왕(亡王)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식물대통령도 다르지 않을 터이다. 그러하기에 난국을 타개할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한 비책이 계엄이라는 자충수 다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자신의 보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강경처럼 좌충우돌 내대기는 해도 그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는 겸손해 지기도 한다. 물론 겸손의 이면

에 자기당착의 탈을 쓴 이본주의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지한 신앙고백마저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기에도 그도 그의 집권(?) 2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통령다운 무엇인가가 있기를 기대하고 싶다. 대통령은 아무나 되지 못한다. 성경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롬 13:1,2)고 말씀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첫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고 둘째 국민이 뽑아주지 않으면 되지 못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가가 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 혹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미지만 사랑은 아무나 한다. 너나없이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들이 부지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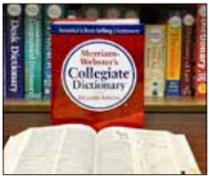
로 많다. 민주주의라는 방패를 내세우기만 하면 자유도 되고 면책도 된다고 착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일지도 모른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앞세운 채 그들을 잡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 짓쳐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모세를 원망하며 돌을 던져 죽이고 했다.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내어밀라고 하셨다. 상식으로도 경험으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하찮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강한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며 통로가 나타났다. 생로가 열린 것이다. 트럼프의 보스가 하신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에게도 이런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는 기도다. 지금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자.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메리엄웹스터 올해의 단어는 ‘양극화’... 중심이 아니라 극단으로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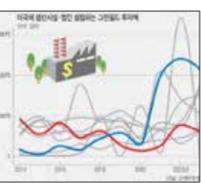
420년 역사의 영어 사전인 미국 메리엄웹스터 사전이 2024년 올해의 단어로 ‘polarization(양극화)’를 선정했다. 9일 AP통신에 따르면, 메리엄웹스터 사전 편집장인 피터 소콜로프스키는 이날 양극화를 올해의 단어로 발표하기 전 인터뷰에서 “양극화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콜로프스키는 이어 “양극화는 다른 단어에 강렬함을 불어넣는 용어”라며 미국에서 인종, 정치, 이념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된다고 말했다. 양극화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폭넓게 사용된다. 대중문화나 기술 트렌드, 산업 등에서 새로운 균열이나 깊은 균열을 강조하는 데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 소콜로프스키는 “양극화는 보수적인 폭스 뉴스와 진보적인 MSNBC·CNN의 해설자들이 정치적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며 “양측 모두가 사용하는 용어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모두가 동의하는 단어”라고 덧붙였다.



2016년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으며 온건파로 돌아섰다. 알누스라전선의 이름도 시리아 해방 기구를 뜻하는 HTS로 바꿨다. 알잘라니는 2021년 미국 PBS 프런티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테러리스트 지정은 불공평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반대한다”며 서방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반군에는 HTS 외에도 여러 계파가 뒤섞여 있는 탓에 시리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HTS는 반군 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진짜 시험은 각 진영이 승리의 전리품과 권력을 나누려고 할 때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시리아 문제 해법을 놓고 친구 권력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 붕괴에 미국의 외교력이 작용했다며 동맹국들과 시리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시리아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의 순간”이라며 “미국은 파트너 및 시리아의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그들이 위험을 관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내버려 두라. 관여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 투자 확대에... ‘코리아타운’ 된 미국 소도시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진출이 증가하면서 쇠락했던 미국 소도시들이 부활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한국인이 대거 이주하고 한국 관련 상업이 속속 들어서면서 ‘코리아타운’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가장 미국적인 도시 코코모가 코리아타운으로 변하고 있다”며 “미국 소도시들이 한국 기업의 투자로 경제적 부흥과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제조업 쇠퇴의 상징이었던 인디애나주의 코코모는 삼성SDI와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 두 곳을 건설하며 생기를 되찾고 있다. 약 800명의 한국인이 이주해 아시아계 인구가 두 배로 늘며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 현지에 없던 한식당 7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지역 호텔에선 한국인을 위해 젓가락과 슬리퍼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코코모의 한 교회는 디지털 간판에 한글을 추가하며 한국인 공동체에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코코모는 과거 지역 경제 붕괴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쇠퇴하는 도시’로 꼽히기도 했다. 현지 주민은 “이제 코코모는 한국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서베너와 텍사스주 테일러 등에서도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며 한국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서베너에 76억 달러(10조900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 전



용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에 400억 달러(57조4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는 중이다. 서베너에는 대형 아시아 식료품점과 한인 교회 두 곳이 문을 열었고, 테일러에선 현지 관청이 공장 직원 수요를 충족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한식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 동남부 한인상공회의소 재 김 회장은 “이 같은 현상은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사회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거점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인 거주지 귀넷은 현재 ‘남부의 서울’로 불릴 만큼 한국 문화가 깊이 뿌리내렸다. SK그룹은 1980년대 후반 애틀랜타에 진출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애틀랜타 당국에 따르면 100개가 넘는 한인 교회와 수백 개의 한식당, 술집, 노래방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교민은 “대부분 주민이 영어를 몰라도 생활할 수 있다”며 “이곳에선 고향이 그리움”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임대료 상승으로 일부 저소득층 주민들이 도시를 떠났고, 한국인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전기차 보조금 등의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미 국방장관 “北 도발가능성 아직 못 봐...한·미 동맹은 철통”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미 동맹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9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현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변화를 보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같다”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나와 같은 직위의 참모들과 합참 의장 등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국내적인 정치적 도전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보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일단 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한·미)의 관계는 굳건하고, 미국은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한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류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5일 의령의 정부당국자 2명을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바이든 보복 지지 안 할 것...관세는 미국 부유하게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바이든에 대한 보복 수사를 강조했지만, 당선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는 또 1기 재임 시절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2기에서도 공격적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바이든을 쫓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정말 우리나라를 성공시키고 싶다. 성공을 통해 보복을 이루고 싶다”며 “내가 그것(바이든 수사)이 합리적이냐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에 대해 “지옥에 살고 있다”며 취임 첫날 사면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그는 “나는 매우 신속히 행동할 것이다. 취임 첫날”이라며 “그들은 몇 년 동안 더럽고 역겨운 곳에 갇혀 있었다. 그것은 매우 불공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임기는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8월까지인 파월 의장의 임기를 단축할 것이냐는 질의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선포한 공격적 관세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는 “나는 관세를 믿는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한다”며 “관세를 적절히 사용하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기 재임 시절) 중국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세탁기에 50% 관세를 부과했다”며 “윌풀과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세탁기 회사들은 매출이 급증했다. 수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은 관세를 거론하며 나온 것이 유일했다.

트럼프는 이어 “관세는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와 게임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방위비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청구서를 제대로 지불한다면 나토에서 그들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은 우리보다 유럽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대량 추방하고, 출생 시민권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는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해 “그것을 끝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다.

개혁신의 윤리학(7)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V. 율법주의 (legalism)와 율법폐기주의 (antinomianism)

B. 율법폐기주의 혹은 반율법주의 (Antinomianism)

바울이 고전 9:2와 갈 6:2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법" (the law of Christ)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 사이의 차별은 없다. 이 둘은 동일하며, 모두 영원 불변하다.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은 십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권위가 유지된다는 말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고치기도, 율법의 원래 의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강조하신 말씀이다.

예레미야 31장과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에 대해, 토마스 맨턴(Thomas Manton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새 언약 아래 율법을 폐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마음에 임할 수 있는 문자로 율법을 기록하시는가? 성경께서 새 언약 아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고

히 하신다." (토마스 맨턴은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사이며, 웨스트민스터 총회 서기였고, 올리버 크롬웰의 군목으로 활동했다).

율법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는 로마서 6:14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는 말씀을 강조한다.

14a: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사실의 진술이지 권고가 아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저주 그리고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14b: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며, 은혜 언약하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므로 칭의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와 율법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들은 영원히 거룩한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할 자유를 얻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엄숙한 의무 아래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산

다.

율법폐기주의자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7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잘못 해석하여 가르쳤다. "모세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를 가르쳤다. 모세는 은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오직 예수만이 알았다" 하면서 모세와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서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설명한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주장이다. 이것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예언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이며, 모세와 그리스도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

요한복음 1:17은 갈등이 아니라 서로 비교를 묘사한다. 율법은 은혜를 확립하고, 율법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섬긴다. 모세와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조화를 이룬다. 로마서 3:31 "그러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폐기주의자"들과 "새언약 신학자"들은 출 20:8의 넷째 계명의 위치(The status of the fourth commandment)를 문제 삼는다. 이들은 제4 계명이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안식일의 본질은 유대인의 제도였으며, 신약에서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신약에 "주의 날"은 단 한 번만 언급된다고 한다 (요한계시록 1:10). "주의 날"은 4계명과 관련이 없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날은 바뀌었지만, 안식일은 보존되었다"는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의날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안식일의 규례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십계명)보다 훨씬 앞서 있는 창조의 규례 (creation ordinance)이며, 모든 인류에게 항상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일이다.

"날은 바뀌었지만 안식일의 규례는 보존되었다"는 계속성의 원칙은 신약에 적용되며, 이 안식일의 규례는 신약 시대가 발전하면서 확증되었고, 주일의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신약의 안식일로서 매우 적합하다 (New Testament sabbath 혹은 Christian Sabbath). 주의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확립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규범이 된다.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며,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방편이다 (means of sanctification).

주님께서 요 14:15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다.

초대 교회의 일부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율법적인 생활을 용납한다는 사상을 전파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은혜의 이름으로 성적 부도덕을 용납했다 (유 4절).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율법 (도덕률) 폐기론에 반대했다. 요일 2:3-5,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

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율법폐기론은 초대 교회부터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났다. 종교개혁 시대에 말틴 루터는 신루터교의 도덕률 폐기론자 (neo-Lutheran antinomian)인 요하네스 아그리콜라(Johannes Agricola)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Against the Antinomians)를 썼다.

17세기 영국 에드워드 피셔(Edward Fisher)는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를 다루기 위해 <현대 신학의 골수>(The Marrow of Modern Divinity)를 썼다. 이 책은 또한 18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율법폐기주의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주재권 구원론 논쟁" (Lordship Salvation Controversy)의 핵심은 "율법폐기론"의 문제이었다 (이 문제는 Westminster West의 Horton, Michael 교수의 저서, Christ the Lord: The Reformation and Lordship Salvation 를 참고하라).

1988년, 존 F. 맥아더 (John F. MacArthur Jr) 목사는 <예수에 따른 복음> (The Gospel Against Jesus)의 출판했다.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Zane Hodges의 <Absolutely Free: A Biblical Reply to Lordship Salvation>를 통한 "자유 은혜 신학"(Free Grace theology)이다. 이들은 "주재권 구원론" (Lordship Salvation)은 율법주의라면서 비판하였다 (Hodges, Zane (1992), The Gospel Under Siege). 그러나 존 맥아더 목사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Savior 뿐만 아니라 "주 (Lord)"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주장했고, 반대측은 성도들의 믿음에는 율법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논쟁은 20세의 율법폐기주의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KHL0206@gmail.com

베드로 진서 35

아무도 모르는 그 날

유명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영화나 드라마에 함께 했던 동료, 후배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고인을 그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젊은 연예인들도 많이 참석했다. 고인과 비슷한 연배의 한 연예인이 참석한 젊은 연예인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어 "고맙네. 선배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해주니.. 자네는 내가 죽었을 때도 꼭 와주시게."했더니 그의 말이다 "언

젠데요?" 사실인지 조크인지? 젊은 연예인의 질문이 우스우면서도 섬뜩하다. 아무도 모르는 그 날. 나의 장례 일자는 언제 일지? 저 분의 장례 일자는 언제 일지. 나의 날임에도 그 날을 모르고 산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일정은 자신이 알아서 짜다. 친구와 만남도 결혼식 날도 회식 일자도 내 스케줄에 맞추어 짜다. 그런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내 마

음대로 짤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날인 것이다.

속연해진다. 준비된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아니다. 필요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이상의 책임감으로 살아야 한다. 한국의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다. 한 군졸이 사랑하는 궁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말한다. "번듯하게는 못 살아도 번듯하게는 살 걸세." 멋진 대사다. 남들처럼 풍요하게

살지는 못해도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번듯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아닐까? 그 날까지 번듯하게.

revpeterk@hotmail.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5년 봄학기 신, 편입생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신앙칼럼

예수는 누구신가?(Who is Jesus?)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성육신하신 성탄의 절기입니다(눅 2:18).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지방에(마 16:13) 있는 수련회 장소로 수련회를 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결산하시고 구속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결산하시는 뜻으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열두 제자 반 기말시험 문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 또는 갈릴산에서 거저 선지자 850명을 홀로 물리친 불의의 사자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보았습니다(마 16:14).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또는 사대성인 중의 한 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아주 작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빙산의 일각 정도 조금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새끼손가락 보고 자기가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대성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흔히 사대성인을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라고 말합니다. 사대성인 중의 하나인 공자에게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었다니 공자가 이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 대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대성인 중의 하나인 석가모니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성철선님이 입적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고민하였고 마지막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지옥이나를 부른다. 사탄이여! 내 주님 이시여! 몸부림을 치며 운명했다고 합니다.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에게 작은 자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사대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나, 석가모니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

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베드로의 고백(Peter's Confession) 베드로는 예수를 주(主)라고 고백했습니다(마 16:16). 주(主)라는 말은 존경의 의미로 선생이라는 뜻이 있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주(主) 곧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의 주는 예수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시대의 흐름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이라는 뜻에 주(主)로 숭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이라는 주(主)라고 한 고백은 가이사 황제가 주(主) 곧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主)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가히 혁명적이고 폭발적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마 16:16).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란 기쁨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함은 예수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했고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쁨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 참 선지자와 참 왕과 참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the Living God)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마 16:16). 예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강아지는 개의 아들이니이다. 송아지는 소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 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본질이 같습니다. 공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석가모니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본질이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말입니다(빌 2:6).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체 이신 분이 자



차용호 목사 (센터별안장로교회)

기를 비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좋아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깨닫는다(Realized by the Holy Spirit), 이것이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라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 베드로의 고백은 지혜와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밝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혜와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며 전국 문 앞에 설 때 전국 문이 자동문처럼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어 고백하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국 문을 열어주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비범한 12월

평범한 삶과 비범한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학력, 고소득, 높은 지위, 많은 유산, 고도의 정신력, 고매한 인격 등이 그 차이를 만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삶의 시련이 닥칠 때 이러한 것들은 무색하게도 한계를 드러내며 본성의 민낯을 보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예와 부와 고학력을 가진 자라도 지속적으로 본성을 자극하는 삶의 시련 앞에서는 그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군사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어떤 일로 정서적인 타격을 크게 입으며 감정의 손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설령 고학력과 존경받는 인품을 소유했다 해도 그 타격 앞에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시련이 남긴 감정의 손상 앞에는 자신의 전 존재가 바람 앞에 종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촛불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 신앙적 비범함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일반인과 동일한 감정과 의지의 사람이었다. 그는 사명을 이루어가며 당한 수많은 시련 속에서 어떻게 꿋꿋하게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을 거부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도 인간이기에 감정적인 손상을 입는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본성적인 자기감정에 응하는 대신 다른 것을 주목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는 예수를 위하여라는 가치 아래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시련을 당당히 맞서며 풍전등화 같은 삶의 위기를 오투기처럼 이겨가며 부르심을 이루어간 것이다. 결국 인생의 비범함이란 인간이 가진 능력의 내용에 있지 않고 본성적인 감정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느낀다. 그 믿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도 커서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며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의 감정과 지성 그리고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올바른 판단이라 여겨지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모본이다. 철저한 인간으로서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인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 일이 괴롭고 힘든 일이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다. 무엇이 그를 한 인간으로서 비범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낸 분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받드는 데 있었다. 인간으로서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규명한 비범함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의 뜻을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인간의 비범함은 개화를 위해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인생은 유한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올해 독자들의 마지막 달은 모두가 비범한 1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4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p> <p>담임목사: 홍기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영양회: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21-1112, ebscross@yahoo.com 603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말씀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다윗</p> <p>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Tel: (360) 907-7271, blescolto@yahoo.com 38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891, 267-471-7777, Fax: (610) 222-0892 328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신종</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령): 오후 1:45 금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8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유지,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센터별안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703) 581-9236, www.koreanpc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알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교회</p> <p>담임목사: 함성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8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승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337 706 Wilmer Rd, Ho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오광균</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전망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p> <p>Tel: (254) 213-1200, (254) 658-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laconkcc.org 9424 S. Ye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로...</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로...</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로...</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로...</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로...</p>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그 날을 사모하며

2017년 1월에 매트 레드맨(Matt Redman)이 발표한 '그 날(One Day), 그 날에 천국에서(When We All Get to Heaven)'의 복음

성가를 부르면 벅찬 감동과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

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 날에, 그 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 날에, 그 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홀연히 변화되리 그 날에, 그 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 날에, 그 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볼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 날에, 그 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볼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성도는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 날! 인생의 순례 길을 마치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날! 성도에게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삶의 고통들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LA 다운타운에서 2시간을 운전하여 헤스페리아(Hesperia)에 가면 최고의 노천 온천인 딥 크릭 핫 스프링스(Deep Creek Hot Springs)가 있습니다. 딥 크릭 온천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 왜냐하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딥 크릭 온천을 가려면 주차를 하고 최소한 2마일의 산행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려가는데 40분, 올라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그늘도 없고 험소한 산 길의 능선을 따라서 가는 수고와 고생을 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는 등산로가 사유지와 국유림이 같이 있어서 길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려가다가 보면 여러 갈래 길이 나오는데 전혀 이정표가 없어서 초행 길이라면 헛갈려서 길을 잃게 됩니다. 84세 되신 노인이 딥 크릭 온천을 가다가 길을 잃어 산에서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나도 세 갈래 길이 나오는 곳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20분 이상 헤매다가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무성한 나무들도, 들꽃들도 거의 없는 황무지와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쬐며 험준한 등산길을 걸어야 합니다. 험소한 길, 오르내리는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려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여길 때 눈에 협곡이 보이면서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게 됩니다. 계곡 사이로 흐르는 계곡 물과 지금까지 걸어오며 보지 못했던 울창한 나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 내려오며 걸어왔던 모든 힘든 시간과 순간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힘을 내서 빨리 계곡에 있는 따뜻한 온천에 들어가고 싶은 설레이는 마음과 드디어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호수처럼 잔잔한 강물 위로 바위와 수초가 어우러져 있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며 뜨거운 온천탕에 들어가면 걸어도 지친 모든 육체의 피로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길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josupbois@gmail.com

설교에 유머가 필요할까?

(1면에서 계속)

스펠전은 그것을 옹호했다. 그는 물고기를 끌어 모이기 위한 "미끼"로 설교 곳곳에 유머를 뿌렸다. 스펠전은 자기 동시대 설교자들 일부는 "너무 지루하고, 단조롭고, 길고, 쏘는 맛만 강해서" 예배당이 텅 비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스펠전을 본받아야 할까? 과연 설교에 가벼운 웃음을 위한 여지가 있을까? 나는 스펠전이야말로 강단에서 전해지는 웃음에 대해서 가장 건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격에 맞는다면 유머를 사용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 단, 결코 송고한 복음 진리를 방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마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유머에 대한 스펠전의 견해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아내 수지 스펠전이었을 것이다. "찰스는 억지로 농담을 하려고 애를 쓴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억지로 유머를 하지 않으려고 참은 적도 없지요." 나는 결코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다. 그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웃음을 즐기고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진지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나는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유머가 설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스펠전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스펠전과 일관되게, 나는 설교에서 유머 통제를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지침을 지키고 있다.

1. 유머가 성격에 맞는 경우에만 사용하라

다음과 같은 실패 사례를 참고하라. 나는 언젠가 극단적 진지함으로 유명한 연설자가 아내에 대해 농담을 한 것을 들었다. 그 농담은 말 그대로 실패했고, 그 농담은 정작 그 남자를 비열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유머에 침묵으로 반응하는 청중에게 그는 당황했을 것이다. 나도 그 사람의 처지였다면 똑같았을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도움을 준다. 그는 강단에서 하는 모든 유머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의 설교와 설교자를 보라. 유머의 적절성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웃기는 게 목적인 사람은 혐오스러운 존재이며 결코 강단에 올라서는 안 된다. 단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유머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복음주의 설교자들 중에는 유머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다. 왜냐하면 유머가 그들의 천성이었기 때문이다. 알리스타어 베그(Alistair Begg)

의 스코틀랜드 억양이 그의 웃음 포인트를 더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맷챠들러(Matt Chandler) 케빈 드영(Kevin DeYoung), 러셀 무어(Russell Moore), 트립 리(Trip Lee), 그리고 고인이 된 스프롤(R. C. Sproul) 등도 유머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2. 유머는 간간히 사용하라

성경에도 유머가 있다. 잠언은 지혜롭지 못한 삶의 부조리를 묘사한다. 예를 들어, 솔로몬은 게으름뱅이에게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그 행위를 살펴 보라"고 말한다(잠 6:6).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눈에서 전봇대부터 떼어내라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운운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방식이 바로 거룩한 풍자이다(마 7:1-5).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유머는 매우 드물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따라서 설교는 그 사실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3. 함부로 유머를 사용하지 말라

내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한 원로 목사가 유머집을 사서 가능한 한 많은 재밌는 일화와 이야기를 알아두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교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는 일단 대여섯 개 농담부터 던집니다. 그리고는 바로 진지하게 본문으로 들어가지요." 다행히도 내가 자랑스럽게 들었던 우리 가족 목사님 아드리안 로저스 같은 사람 덕분에 나는 그 원로목사의 조언이 설득력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소통에 필요한 도구인 유머가 아예 말씀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실용주의자 로이드 존스(그에게는 유머러스한 면이 있다)와 활기찬 스펠전은 하나같이 설교자가 단지 가벼움을 위해서 웃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유머가 경박함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스펠전의 말이다.

하나님의 좋은 대증을 즐겁게 하는 단순한 연예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요점 없이 진부한 농담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쏟아낼 권리가 없다. ... 종교적 가르침을 흥미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나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명확한 목적이거나 목표 없이 말씀을 어리석은 웃음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로이드 존스도 우리에게 그의 지혜를 나눠준다. 설교에 유머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설교의 특성과 우리가 다루는 진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공간은 바람직하지 않다.

4. 하나님 말씀의 진지함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방식으로 유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적절하게 사용한 유머는 교인의 마음에 어느 정도 숨 쉴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진리에 대한 부수적인 깨달음을 제공한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나는 절대로 유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설교의 특정 시점, 예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하거나 죄의 치명성을 강조하거나 회개를 촉구할 때에도 유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쉬지 않고 농담을 섞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설교의 연속성은 오간데 없고 설교 전체는 훼손되었다. 죽음은 재미없는 주제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재미없지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유머는 적절한 시점에 조심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5. 풍자극과 희화화

로이드 존스는 당시 설교자들이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것을 보았다. 그는 웃음의 나눔 가능성이 있다고 반드시 그것을 금지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머 나눔을 지나치게 조심해서 둔하고 무색하고 생기가 없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설교자가 자신을 잊고 악마를 기억하는 한, 결코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스펠전의 활기찬 성격이 그의 설교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결코 그의 설교를 지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는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유머를 사용하여 우울함에 빛을 비추고 부조리에 풍자화를 그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마르틴 루터가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때때로 웃음은 의로움의 가장 밝은 무기로 우울함과 죄를 모두 쫓아낸다. ... 나는 웃음에도 우울함이나 거룩함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 나는 사탄에게 대항하는 무기인 조롱을 왜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종교 개혁이 인간의 우스꽝스러움에 대한 감각에 빛을 비추는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단언하고 싶다. 그리고 루터의 친구들이 내놓은 유머러스한 풍자극과 희화화가 로마가톨릭에 대한 어떤 견고하고도 엄숙한 주장보다도 성직자의 혐오스러움에 대해서 목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아멘. 우리는 주권자이자, 행복한 하나님을 섬긴다. 나 자신과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며 우리 지금 큰 소리로 웃자(잠 31:25).

by Jeff Robinson, TGC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 은혜롭게 마쳐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

지난 2024년 12월 4일 10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예배실에서 120여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 '에벤에셀 그리고 여호와아레'라는 주제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회로 모였다"고 말하며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간

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사말을 했다. 전영숙 전도사(감사한인교회)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조이 김 선교사(CMF)가 기도했으며, 이창남 목사(OC 교협 회장)가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회복하자(느 1:12)'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태광 목사(중보기도운동 사무총장)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에서는 간증과 기도가 이어졌다.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간증했고, 안현숙 목사(청교도 화요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밤 7시에

중으로 모이는 화요 기도회의 기도활동을 간증했고, 유수연 교목위원장은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섬리로 트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했고 김철민 장로는 CMF 기도활동을 간증했다. 그리고 각 기도 인도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장래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 인도자들은 트림프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한 신임 내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기도했고, 미국의 교회들이 각성하기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다.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에서 한국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어서 조국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한 신용환 목사(주님 세운교회)는 조국의 무질서와 혼란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회는 1월부터 2025년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이며,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기도팀과 중보 기도자들은 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310-995-3936)나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파사데나장로교회 캔들라이트 앤 캐롤스 음악회를 마치고 출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파사데나장로교회 캔들라이트 앤 캐롤스 성향리에 열려

149년 역사를 자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한인회중 담임 최진영 목사)는 7일(토) 오후 7시 30분, 제80회 크리스마스 음악회 캔들라이트 앤 캐롤스 성향리에 개최했다.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연말 전통'으로 자리 잡은 이번 음악회는

트리니티 콰이어를 포함한 다섯 개 합창단과 핸드벨 콰이어, 전문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풍성한 음악을 선사했다. 또한 리사 헨스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목사 겸 전체 회중교회 담임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Of the Father's Love Begotten'

연주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연합성가대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 레인보우 찬양대와 캐롤찬양대가 '산 위에 올라가', 파사데나싱어즈가 'Gloria in Excelsis(from Gloria)'와 'Rejoice and Be Merry', 트리니티찬양대가 'Blessed Is the Lord'를 부르는 등 고전 성탄 음악부터 현대 작곡가들의 캐럴까지 다채로운 곡들이 연주됐다. 또한, 관객들이 오케스트라와 파이프오르간의 반주에 맞춰 '오 참 반가운 신도여', '저 들 밖에 한 밤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크리스마스 캐럴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공연은 연합찬양대와 회중들이 '징글 벨'을 함께 부른 뒤 마쳤다.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회중이 한 당회를 이루는 다문화 공동체로, 매년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박준호 기자)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동부교계 기사관

뉴욕목사회,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한준희 목사)는 12월 15일(주일) 오후 5시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목사 시무)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엡 4:3)'라는 표어로 제53회기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 문의: 총무 박현영 목사 917-370-5954

크로스선교회, 북한 선교 후원 음악회

크로스 선교회는 12월 15일(주일) 오후 3시 필라델피아로교회 제2예배당(정승환 목사 시무)에서 북한 선교 후원을 위한 성탄감사 음악회 'Blessings'를 개최한다.

▲ 문의: 215-542-0288

퀸즈장로교회, 사랑의 바구니 전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12월 19일(목) 오전 9시30분 지하친교실에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어 전달한다.

▲ 문의: 718-886-4040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제5회 정기연주회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단장 박영희 권사)은 선교를 위한 제5회 정기연주회를 12월 22일(주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야교회(전광성 목사 시무)에서 개최한다.

▲ 문의 718-406-7577



2024 세계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더나눔하우스 후원감사의 밤을 마치고 기념 촬영했다

국제장애인선교회, 2024 세계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땅 속의 열매를 찾아 섬겨온 34년의 섬김”

국제장애인선교회(회장 노기송 목사)는 12월 5일(목) 오전 10시 유니온 플라자 양로원에서 UN이 정한 2024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우리 서로 잡은 손)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회장 노기송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도 송인규 목사(웨체스터교회협의회 서기), 설교 임일송 목사(웨체스터교회협의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임일송 목사는 마가복음 10:45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러 오셨음을 기억하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섬기는 이에게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유니온프라자 양로원 디렉터 라리사는 코비드 시기에 매 주 두 번씩 방문하며 한 분 한 분을 위로하고 가족처럼 기도로 섬겨주신 임선숙 총무이사의 헌신과 지난 30여 년간 봉사자들과 함께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원 장로(이사장)는 “34년 동안 장애인들을 섬기며 헌신해 온 목사님들과 자원봉사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인사했으며, 박마미클 목사(한마음침례교회)는 축사를 통해 “땅 속에 있는 귀한 열매를 찾아 섬기며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온 국제장애인선교회가 60년, 100년 계속 지속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는 밀알선교합창단(지휘 이다니엘)의 합창, 테너 신남섭, 여가재, 소프라노 이에실의 독창, 트럼펫 유요선, 핸드벨 앙상블의 연주가 어우러져 깊은 은혜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밀알선교합창단과 함께 ‘생명 주께 있네’를 아름다운 안무와 함께 찬양하며 마쳤다. 국제장애인선교회를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718-353-3791로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더나눔하우스, 후원 감사의 밤

“복음을 전하며 기쁨과 충만을 주는 나눔”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상원 목사)는 12월 8일 오후 5시 KCS(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후원 감사의 밤을 개최하며 “기대”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커뮤니티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임은숙 본부장, 최락경 본부장(뉴욕 라디오 코리아)이 진행을 맡고 “O Holy Night”곡의 연주를 시작으로 기도 김종일 목사(뉴욕성서교회), 말씀 김성준 목사(뉴저지 은혜의강교회)로 진행됐다. 또한 테너 김영환 전도사와 소프라노 이희정 집사의 본 행사의 주제인 “기대”의 찬양이 이어졌다.

김성준 목사는 ‘내 이웃이란’(눅 10:36-37)제목으로 “우리의 이웃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속에 강도 만난 자처럼 언제나 있다. 우리는 바쁘고 번거로워 우리가 세워 놓은 수 많은 기준 때문에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다가 손 내밀라”고 강조했다.

이문향 의학박사는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나눔 하우스는 복음을 전

하며 기쁨과 충만을 주는 섬김의 장소”라고 격려했고 이계자 가정상담원 원장은 “더나눔 하우스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함께 나누며 생명말씀과 소망을 전하는 장소로,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이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될 것이다”라고 힘과 위로를 전했다. 이어 그레이스맹 의원(연방하원의원), 정영호 총영사(시카고), 조정민 목사, 톤길 의원(뉴욕주하원의원)의 영상 축사와 김광석 회장(뉴욕한인회)이 축사했다. 이날 준비된 영상 “더나눔하우스의 하루”와 “더나눔하우스 이야기”는 회복의 자리로 걸어가는 더나눔하우스 가족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담아냈다. 또한 더나눔하우스 합창단(지휘 손옥아 권사)이 나와 “여기에 모인 우리”를 뜨겁고 힘차게 찬양했다. 모든 순서는 방지가 목사(뉴욕교협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 달 20불의 1인 1구좌 후원으로 더나눔하우스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718-683-8884로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연합회 정기총회 후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진 촬영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연합회, 정기총회

신임 회장 차용호 목사, 총무 손기성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연합회(회장 지선목 목사)는 12월 9일(금) 워싱턴신학교(이사장 문선희)에서 송년 예배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에 앞서 임현목 목사(제47대 워싱턴교협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지선목 목사(제22대 워싱턴교협 회장)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2-12)”는 제목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강조했다. 송년예배는 차용호 목사(

제37대 워싱턴교협 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 차용호 목사를 회장으로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손기성 목사를 총무로 추대했다. 신임 회장 차용호 목사는 “임기 동안 밖으로는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전찬선목사) 사역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협력하고, 안으로는 회원들의 생일을 매달 축하하며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연합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24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 2024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이 12월 1일(주일) 오후 5시 뉴욕늘기쁨교회(김홍성 목사)에서 열렸다. ‘후원자의 밤’ 행사는 미동부기아대책 최태의 연례행사로,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아대책이 1년에 한번 후원자들을 초청하여 사역을 소개하고, 새로운 후원자들도 초청하는 사업이다.

1부 예배는 사회 한준희 목사, 찬양과 경배 양상훈 목사(뉴욕하모니교회),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성경봉독 김인한 장로, 설교 박희열 목사(뉴욕빌립보교회), 축도 김홍성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희열 목사는 “주는 자의 복(사도행전 20:35)”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리라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2부 후원자의 밤은 사회 한 필상 목사, 개회기도 전희수 목사, 회장인사 박진하 목사, 사역 영상보고 및 후원안내 관계 더린 목사, 헌금기도 조상숙 목사, 특별연주 앙상블 메누하, 임원소개 및 광고 한필상 목사, 폐회기도 김용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박진하 목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미동부기아대책은 2007년 뉴욕에서 시작된 사랑

의 공동체로, 빵과 복음을 들고 중남미의 어려운 이웃들, 특히 어린 생명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깨끗한 재정을 최고의 윤리기준으로 삼는 신뢰받는 NGO”라고 소개했다.

특별히 올해 후원자의 밤 행사에는 크리스천 앙상블 메노아가 특별출연하여 클래식한 연말 분위기가 물씬나는 가운데 연주가 진행됐다. 씬이라는 뜻의 ‘메누하’라는 이름을 가진 ‘앙상블 메누하’는 선교의 열정을 지닌 30여명의 전문 음악인들이 모인 음악선교단체로 2015년 창단되어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진요섭, 피아니스트 양지혜, 첼로리스트 진은애, 테너 박종현, 바이올리니스트 진찬희 등이 출연했다.

기아대책은 현재 중남미를 중심으로 1백여명의 아동을 결연하여 아동을 매달 3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호신장로교회,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 후 사진 촬영했다

뉴욕호신장로교회,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

“목양의 사각지대 없이 사랑을 나누는 임직자”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김광선 목사)는 12월 1일(주일) 본당에서 제3대 김광선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임직식을 갖고 박충기, 서순석, 최해남 장로, 김명문, 송수현, 이형중 안수집사, 권혜령, 박현미, 흥혜연 권사가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졌다.

이날 임직식은 교회 소속인 ARPC 교단 NEP 노회에서 목회자들이 대표기도와 축도, 권면을 받았으며, 평신도 리더 김

덕원 장로(당회 서기), 이미지 권사(최고령 구역장)의 축사가 있었다. 임직자 교육은 교단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회행정을 배우는 ‘교실수업’과 빌시흠 및 장기 투병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실습’으로 진행됐다.

김광선 목사는 “직분자는 목양의 사각지대 없이 사랑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실습 교육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임직자들은 “임직교육을 통해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해야 할지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날 임직식은 교회 전통에 따라 직전 기수에 임직을 받은 장로들이 신임 장로들의 가운데 직접 임혀주고 격려하며 축하했으며 방지가 원로목사의 권면과 양근식 목사의 축가, 임직자 대표로 서순석 신임장로가 답사했다. 이날 임직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기사제공: 뉴욕호신장로교회)

피종진 목사 12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 12.1(주) 제242차 해외성회(242nd Overseas Assembly)
- 2(월) 미국(U.S.A) 뉴욕시광교회 주일부흥성회(최고선 목사)
- 2(월) 미국(U.S.A) 사단법인 7천기독교클럽(이사장 권태일 목사, 1대 대표총재 김준곤 목사, 2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뉴욕 기도회, 동역 뉴욕 기독교방송
- 2(월)~4(수) 미국(U.S.A) 뉴저지 지역
- 2(월) 미국(U.S.A) 뉴저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이재성 목사)
- 3(화) 미국(U.S.A) 뉴저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이재성 목사) 부흥성회 및 Pastor's Seminar
- 4(수) 미국(U.S.A)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재성 목사) 부흥성회 및 사단법인 7천 기독교클럽 뉴저지 기도회
- 7(토) 오전 Special Blessing Event Class
- 9(월) 오전 텐트메이커선교회(주)하나인 6층(대표 남보성 목사)
- 9(월) 오후 오산리교회자실기금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 10(화) 오전 서울 새생명교회(변용성 목사) 010-2074-5398
- 10(화) 오후 인천 주사랑 열방교회(백서량 목사) 010-2272-9119
- 10(화) 오후 서울대학교 동문 송년 MT 장소 : 서울 동대문 메리어트 그리핀
- 12(목)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주최 : 대한예수교정교회(임종부총사) 대표회장 박경근 목사) 010-2202-0691
- 13(금) 오전 서울 영동 일레오호텔 3층 주최 : (사)대흥교회(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 13(금) 저녁 서울 풍성한 교회(임민호 목사) 010-3289-3991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제243차 해외성회 (243rd Overseas Assembly)

- 16(월)~17(화) 일본(JAPAN) 東京神學校 Tokyo Theological Seminary (학장 정스데반, 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日本政有認可
- 18(수) 저녁 일본(JAPAN) 東京(日韓文化交流協會 東京大會 Japan, Korea, China Exchange Association Conference in Tokyo)
- 19(목) 낮, 저녁 일본(JAPAN) 東京 우에노공원 대종전도교회 (동경 우에노 사랑의교회 김태일 선교사 및 일본선교 자원봉사단)
- 20(금) 저녁 일본(JAPAN) 日本 韓國 문화교류협회 Narita 大會 및 특별성회
- 21(토) 오전 서울 주님의교회(배성주 목사) 010-3065-7825
- 23(월) 오전 주회 : 작은자섬김선교회(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 23(월) 오전 한국기독교여성전도회(주최) : (사)한국기독교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 23(월) 오후 기독교여성전도회(주최) Blessing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20층
- 25(수) 오후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성탄절 연합예배 010-8222-1992
- 26(목)~27(금) 천안 위대한교회(윤재민 목사) 010-3890-5991
- 31(화) 저녁 남서울중앙교회(주) 피종진 목사, 담임 여친근목사) 02-3411-9191 송구영신축복대안수도성회

대한예수교중앙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여우포) Fax. 02)401-7770



후원자의 밤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세기연 신앙도서 독후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기연 신앙도서 독후감 시상식과 총회 개최

“기독교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 하는 독후감 쓰기 운동”

세계한인기독교연맹회(세기연, 회장 임승래 장로) 제27차 정기총회와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수상자 시상식이 지난 12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LA 한인타운에 있는 온달식당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1부 예배와 시상식, 2부 정기총회 순서로 열린 이날 예배는 윤우경 권사(크리스천 헤럴드 총괄본부장)의 사회로 시작돼 박준호 기자(미주 크리스천신문) 기도, 조명환 목사(크리스천 위클리 발행인) 설교,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LA지사장) 수상자 발표, 백승철 목사(문학평론가, 에피포도에술인협회 대표) 심사평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시상식은 이날 참석하지 못한 임승래 회장을 대신하여 부회장이자 조명환 목사가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3명은 우수상은 신나리 집사(아바인 주교회), 장려상은 정유미 집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와 손문식 전도사(은혜한인교회)이며 영국과 뉴욕 시상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심사를 맡은 백승철 목사는 “지난해 보다 독후감 참가자수는 줄었지만 수준은 놀랍게 향상되었다. 이런 공모행사가 10회까지 진행되는 게 흔치 않은 일이다. 대단한 성과이며 세기연에 축하드릴 일이다. 세기연이 신앙도서 독후감 쓰기 운동을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독후감 수상자 가운데는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분들

도 있다. 그것이 이런 노력을 잘 반증해 주고 있다. 감사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백 목사는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배홍철 님의 글은 독후감의 정석을 보여준 글이다. 그리고 다른 수상자들 역시 수준 높은 글을 제출했다. 또한 수상하지 못한 분들의 글은 독후감 형식과 다르게 글을 쓰셨지만 매우 훌륭한 수준의 글을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한편 제10회 독후감 수상자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배홍철(영국 하펜던, UK)/읽은 책: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수상: 신나리(아바인 주교회, CA)/읽은 책: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장려상: 정유미(토렌스제일장로교회, CA)/읽은 책: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손문식(플러톤 은혜한인교회, CA)/읽은 책: 어쩌다 거룩하게, △박숙현(사랑의빛선교회, CA)/ 일상의 유혹, △이지은(뉴욕 그리스도교회, NY)/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점심식사 후 열린 세기연 정기총회는 조명환 부회장의 사회로 열려 서인실 사장(크리스천 투데이)이 기도하고 윤우경 서기의 회원점명, 서인실 재무의 재정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임원선거에서는 현 임승래 회장의 유임과 함께 임원진들도 그대로 전원 유임키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이성우 목사(크리스천 헤럴드 선교회 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이트 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아래 타원안은 이날 장학금을 받은 연주자들이 최승호 라크마 단장과 윤임상 뮤직디렉터와 기념촬영하는 모습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이트 콘서트

“장학금 전달식과 3명의 장학생 연주회도 겸해”

라크마(단장 최승호 박사, 뮤직디렉터 윤임상 목사)는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이트 콘서트를 8일(주일) 오후 7시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라크마 부지휘자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에스터 김의 지휘에 맞춰 Leroy Anderson의 ‘A Christmas Festival’, Franz Schubert의 ‘Melle Cherubini in Coro’, 그리고 Adolphe Adam의 O Holy Night(Cantique de Noel)를 연주하며 테너 오정목과 소프라노 니콜 벤슨이 출연하여 라크마 필하모닉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그리고 마에스트로 윤임상 뮤직디렉터의 지휘에 맞춰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코랄이 모차르트의 C단조 코랄인 ‘글로리아’를 연주했으며 소프라노 김혜준, 김시연, 양유진, 테너 오위영이 출연했다. 2부 순서는 장학생

연주회로 진행됐다. 1등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장유라는 객원 지휘자 양성진의 지휘로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1st Mov. Edard Hagerup Grieg, 2등을 차지한 소프라노 정애린은 객원 지휘자 박보미의 지휘로 ‘Caro Nome’ from Opera Rigoletto Giuseppe Verdi와 ‘Asch Ich Fuhl ‘s’ from Opera The Magic Flute Wolfgang Amadeus Mozart, 그리고 3등을 차지한 소프라노 김시연은 윤임상 마에스트로의 지휘에 맞춰 ‘Quando men’vo’ from Opera La boheme Giacomo Puccini와 ‘E strano.. Sempere Libera’ from Opera La Traviata Giuseppe Verdi를 공연하며 공연이 마친 후 장학금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전 출연자들이 헌혈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합창한 뒤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송인 목사 시집 ‘얼음 조각가’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인 목사 시집 ‘얼음 조각가’ 출판기념회

“공간과 시간을 꿰뚫는 깊이 있는 감각으로 쓰여진 시”

송인 목사의 ‘얼음 조각가’ 출판기념회가 7일(토)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김재연 목사)에서 열렸다. 송인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격려해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문학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번에 출판된 시집은 지난 4년 전부터 쓰게 된 시들로 엮여졌으며 30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시집”이라며 “얼음 조각가 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제 삶의 주위가 얼음판이었다. 아이를 키우고 목회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살았던 모든 환경이 얼음판 같았다. 얼음판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어느 순간 시의 세계를 보고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방동섭 목사는 “송인 목사의 시집은 아름답다. 정직하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연 목사는 “시인이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이고 들끓고 들끓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자이고 연약한 꽃송이 속에 깃든 신비로움에 매료되어 사는 자”라며 “송 목사는 달란

트가 많은 자”라고 말했다. 한기형 목사는 “송인 목사는 두 달란트 받은 종과 열 달란트를 남긴 종 같다. 같은 시대를 사는 이민 목회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수련한 문학적 표현으로 시를 써서 공간과 시간을 꿰뚫는 깊이 있는 감각으로 시를 쓰신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USNDC과이어의 특송과 이형배 장로의 트럼펫 연주와 안현숙 목사, 정지윤 목사의 시낭송이 있었다. 임영호 목사는 “송인 시인의 삶을 형상화해서 만든 시가 있다는 것, 얼음조각가는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이었고 호기심을 자극한 이름이었다. 78편의 시를 분류를 했는데 계절을 따라 배치했다. 그리고 계절을 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고향을 이야기했으며 여행의 추억을 시상으로 담았다. 수십 년간 자신을 양무리에 바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한 목회현장을 시로 담았다”며 “특별한 시집이 발간되었으며 시집은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퇴 및 임직 감사예배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은퇴 및 임직 감사예배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All Glory to God)’라는 주제로 14일(토) 오후 5시에 갖는다. ▲ 문의: (714)772-7777

크리스마스 가족뮤지컬 (알렉시스의 크리스마스) 공연 극단 이즈키엘(대표 전수경)의 가족 뮤지컬 (알렉시스의 크리스마스)가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반스달 갤러리 극장 (Barnsdall Gallery Theatre, 4800 Hollywood Blvd. LA, CA)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은 이즈키엘의 대표작 <청년예수>와 <마루마을>을 작곡한 황아를 작곡가의 음악으로 더욱 풍성해진 무대를 선보이게 되며 주연으로는 배우 최원현과 한예람이 출연한다. 티켓은 일반 \$25, VIP \$40. 티켓예매는 홈페이지 (https://ezekiel.la/)에서 할 수 있다. ▲ 문의: (213)200-9544

러빙워십 Beloved 콘서트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주최하는 힐링 토크 뮤지컬 콘서트 ‘비러브드(Beloved)’가 13일(금) 오후 8시, 14일(토) 오후 7시 라미라다 극장(LaMirada Theatre, 1490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에서 열린다. 힐링 토크 뮤지컬 콘서트에는 조셉 리 목사를 비롯해, CBS TV 신앙 간증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 주영훈, 박요한 목사, 가수 송지은(전 시크릿 멤버), 조병진 교수(싱어송 라이터, 사랑과 평화 기타리스트)가 함께한다. ▲ 문의: (213)357-1565

동부장로교회 관리인 구함

동부장로교회(담임 김정오 목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할 동역자를 찾는다. 사례비와 2Bed 사택제공 ▲ 문의: (213)383-3261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송년회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2024년 송년회가 16일(월) 오후 5시 아모라센터 뱅크룸에서 열린다. ▲ 문의: (213)384-5232

LA사랑의교회 성탄축하예배 및 교회탄생 18주년 예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성탄축하예배 및 교회탄생 18주년 예배를 25일(수) 오전 9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213)386-2233

고 전태준 목사 천국환송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고 전태준 목사(로스앤젤레스노회/남가주생명길교회) 천국환송예배가 오는 12월 14일(토) 오후 12시 30분에 LA 한국장로회에서 열린다. 하관예배는 16일(월) 오후 12시 로즈힐에서 드려질 예정이다 ▲ 문의: 딸 레베카 전 (323)509-8533

고 이주석 목사 천국환송예배

오렌지카운티 여성목사회 증경회장이자 세계여성기도모임 회장 이선자 목사의 남편 고 이주석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오는 24일(화) 오전 11시 로즈힐 메모리얼 스카이라즈 체플(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에서 열린다. ▲ 문의: (714)220-7660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주최한 송년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송년 모임 성황리에 개최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회장 김영숙)가 지난 7일(토) 오후 4시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연세대학교 김용호 행정대외부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타 대학 동문회 임원진, 주요 초청인사들, 그리고 20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푸짐한 기념품과 겸품, 그리고 장기자랑, 게임, 맨스타임 등을 즐기며 한 해의 마무리를 흥겹게 장식했다. 특히 이번 송년 모임은 김영숙 회장이 이끄는 회장단의 마지막 주요 행사로,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2025년 동문회 신

임 회장으로 이 원모 동문(신방, 75)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며 내년을 향한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에도 동문회가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으며, 동문 사회와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는 앞으로도 동문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문의: yestorrance@gmail.com, (310)293-5054 (기사제공: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2024 밀알 대통령봉사상 시상식 수상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4 밀알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교실에서 봉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새영교회(담임 정종섭 목사)에서 7일(토) 진행했다.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5일 남가주 OC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사랑의교실은 현재 전 세계 밀알선교단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핵심 사역으로 자리 잡아,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

고 있다. 미주밀알선교단 산하 15개 지단, 3개 지소에서도 사랑의교실을 통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현재 OC, LA, 동부 LA, Irvine, Torrance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교실이 열리고 있고, Santa Fe Springs에 위치한 남가주밀알사무실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교실이 매주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금상 8명, 은상 6명, 동상 10명 등 총 24명의 학생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봉사상이 수여되었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여고생 사망 뒤 떠오른 '구원파' 아동학대 하는 신앙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여고생 김모양)에게 정신 치료가 필요 하단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죄 의식 없이 ‘사탄’ 혹은 ‘귀신 들 린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학대 했다. 치료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김양의 ‘치료 받 을 권리’를 앗아갔다.”

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 (기소선) 소속 교회 합창단 속 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 기간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선 설립자 딸 박모(52)씨와 신도 등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같이 설 명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죄 명은 아동학대치사다. 범조개 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피고 인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 한 김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 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 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를 묶었

단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가혹 행위가 알려지면서 과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고개를 든다.

여고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이단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기독교 복음선교회(JMS) 등에 가려진 구원파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구원파는 한국 교회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합동·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에서 정통교회 와 구원파와 회개관이 다르단 사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구 원파는 구원만을 집착 및 강조 한다고 해 붙여진 명칭이다. 구 원파는 1960년대 등장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독교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침례회(생 명의말씀선교회), 기소선(기쁜 소식선교회) 등 3개 계파를 통 칭한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이단이 알고 싶다’란 저서에서 “이들(구원파)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분파들로 유사한 교리적 주장한다”며 “죄 사함, 거듭남, 구원을 강조하는 한편 이성교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이단·사이비 종교 전문 연구기관인 현대종교(소장 탁지원)는 구원파에 대해 “정통교회와 달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거나 ‘구원 받은 구제적인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등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말한다. 다만 구원파 측은 이에 “교단이 반복적 회개를 부정하고 구원의 비밀은 우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내용의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시한부 종말론 주장 등 반사회적인 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이 잘못된 구원론 교리와 무관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구원파에 한때 몸 담았던 정동식 전 침례신학대 교수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기소선 구원파가 전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인식에서 이어 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목회자들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세대 성탄절 기념 '2024 성탄트리 기증 및 점등식' 지역사회에 성탄절 의미 알리기 위해 개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세대대학교(총장 백인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영성중심 대학’으로 지역사회에 성탄절 의미를 알리기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수집사회(회장 허규홍)와 함

계 성탄트리 기증 및 점등식을 10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인자 총장, 최진탁 부총장, 유대현 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등 한세대대학교 관계자와 허규홍 회장, 이상배 부회장 등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수집사회 대

백 총장은 “한세대대학교에 세워진 성탄트리를 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성탄트리 맨 위의 별은 신앙성경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소중한 이정표로 소개된다”며 “성탄절의 영문 표기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Christ)와 마스(mass·예배)가 합쳐진 말로, 성탄절이면 곳곳에서 사용되는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인사말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허 회장은 “영광의 100주년을 향해 도약하는 한세대대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설립 71주년을 맞은 한세대 학교는 최근 ‘교직원이 함께 쓴 필사성경’을 분할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영성 회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양 대부흥 꿈꾸게 만든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부산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는 지난 7일과 8일 오후 8시 형원 선교사 찬양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 같이’를 공연해 성도와 이웃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선사했다.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 같이’는 극본과 작곡, 편곡에 이르기까지 2년에 걸쳐 준비했다. 호산나교회 문화사역팀 헤브너스(백현주 단장)가 주축이 되고 목회자와 일반성도 그리고 아이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연은 성경적 메시지를 기반으로 찬양과 연극을 조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뮤지컬은 호산나교회의 문화사역과 연계해 지역사회와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다. 예술적 표현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조명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교회 내 다양한 세대와 공동체가 참여

해 협력과 연합의 중요성을 실감케 했다.

유진소 호산나교회 담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고형원 선교사님의 찬양은 다르다. 찬양이 라기보다는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께의 예언 이야기가 아닌 가 싶다. 귀한 찬양들을 많이 만들어 한국인들을 깨우길 바란다. 특히 북한 땅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계신다. 선교사님의 귀한 찬양으로 이 뮤지컬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고형원 선교사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오는 소리들이 뮤지컬 안에서 들려지게 될 텐데 우리 민족의 사명감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한다. 오늘 뮤지컬을 나눌 모든 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무대 인사를 했다.

이번 뮤지컬 극본과 연출을

맡은 백현주 단장은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하리라’는 가사에 대해 ‘정말 그런 날이 올까’라는 물음으로 극본을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과 하다 보니 연습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고 완성도가 항상 아쉬웠다. 그럼에도 이만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무엇보다 이 작품으로 인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뮤지컬의 개요는 이렇다. 1866년 영국 웨일스 출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탄다. 그러나 이 배는 한국인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 불타고 선원들은 모두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때 성경 몇 권만 전하고 순교한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부터 시작된 한반도 부흥의 불길은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고 이후 한국 부흥에 도화선이 된다. 조선인 선교사 부부가 어느 마을을 찾아가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서양 선교사는 요물, 예수 들린 서양 귀신, 이상하고 무서운 존재로만 보였다. 뮤지컬에는 선교사들이 마을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극중 남식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많은 관객을 감동케 했다.



“목회자 연금 비상” 교단마다 자구책 마련 분주 예장통합 전문경영인 도입, 기감 총회 본부 건물 임대 결의 등

고령화와 저출생 등으로 인해 목회자 연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평균 수명이 늘어 연금을 받아야 하는 목회자는 늘어나는데 신학생 수가 줄면서 연금 자산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교단마다 현실에 맞는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는 상황이다.

연금 부족 사태로 교단들이 가장 먼저 조율한 것은 연금 지급액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명걸 목사) 총회는 2년 전 총회에서 신규 수급자 연 3%, 기존 수급자는 연 1.5%씩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도록 연금 제도를 변경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도 3년 전 92만원이었던 연금 상한액을 80만원으로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후 교단들은 단순히 지급액을 줄이는 것에서 벗어나 투

자 전문성 확보와 자산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예장통합은 올해 총회에서 연금재단 사무국장을 선출 직 사장으로 변경하고 목회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을 임명하기로 결의했다.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기금운용을 맡는 것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하지 폐지했던 기금 ‘직접 운용’을 부활시켰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선교사도 연금재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도 열었다.

김취현 연금재단 사장직무 대행은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면 보다 전문적으로 연금을 관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의미를 설명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재단과 가입자 간 신뢰를 쌓으면서 소통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기감은 최근 은급기금 조성 방

안 중 하나로 서울 광화문에 있던 총회 본부를 임시 이전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낸 뒤 은급 기금 조성 과 교단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수익으로 4년간 연 25억원, 총 100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중 은행과 손잡고 퇴직연금을 시도한 교단도 있다. 예장백석(총회장 이규환 목사)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함께 교계 최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할 수 없는 60세 이상 목회자를 위한 결정이다. 연간 결산액이 2000만원 이하인 교회 목회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또 연금재단 설립을 위해 3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김만수 목사)는 유지재단에서 은퇴 목회자를 위해 2000만원을 출연했다. 예성은 이번 회기 주요 사업 중 하나를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은급제도 마련으로 정했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 성결대에서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일부를 은퇴 목회자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김만수 총회장은 “우리 교단 선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전체 90명 중 은급에 가입한 사람이 단 한 명이었다”면서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와 선교사의 노후를 교단이 도와야 한다. 연금의 절반은 파송교회가 내고 나머지는 해외선교회 등이 후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홀로 남은 홀사모의 30년 버팀목... 임대 주거비·생활비 등 지원

홀사모선교회(대표 이예스터 목사)는 남편 목회자를 먼저 떠나보낸 홀사모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대표인 이예스터 목사도 홀사모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30년 전 이 선교회를 창립했다.

선교회는 홀사모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며, 생활비와 자녀 장학금을 후원한다. 또한 긴급 수술비, 애경사 지원 등도 진행하며, 학사관 건립과 노숙인 전도 집회도 주관하고 있다. 이 사역은 주로 한



원으로 이루어진다.

이예스터 목사는 홀사모와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공물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 특집 방송은 CTS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광화문을 태극기 대신 성탄 기쁨으로 덮을 수 있을까 24일 저녁 광화문 기감 본부 앞에서 성탄 축하 음악회 예정

성탄 전야인 2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플래시몹을 겸한 성탄 축하 무대가 펼쳐진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김성복 감독)가 주관하는 ‘성탄전야 음악회’ 서울의 중심에서 성탄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사회자 없이 진행된다. 맨스팀 일루진이 대중에게 친숙한 가락에 맞춰 광장에서 춤을 추며 행사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종교교회, 금란교회 소년소녀합창단, 그레이스 플로우 등 서울연회 소속의 다양한 찬양단과 중창단이 참여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공연을 선보인다.

준비위원장 최복규 월곡교회 목사는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든 이와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연회에 속한 교회 공동체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회는 특히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을 초청, 저녁 식사와 성탄 선물을 나누며 ‘함께하는 특별한 성탄’을 구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정국이 혼란을 빚으면서 광화문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재 서울연회 총무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 집회 신고가 크게 늘어 준비위에서 음악회 장소를 옮겨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ission 선교의 창 (25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해외 한인교회를 통한 세계선교

2024 갑진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연말 손익 계산을 정산할 것이다. 회사들은 한 해의 실적을 참고 삼아 신년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게 된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인교회도 선교 내용을 계수해 보아야 한다. 전 세계 5만여 한인 교회는 어떤 선교적 과업을 달성했는가? 내놓을 것이 크다던 감사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통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전자인가 아니면 후자인가? 만일 과업에 대한 만족도가 차지 않다면 어려운 시대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듯 하나님의 선교 대업은 인간 환경을 초월해왔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들이 닥쳐올까? 짐작건대 앞으로 세상은 격랑이 더 크고 거칠어

며, 캐나다 25만 명, 기타 여러 나라들에 분포되어 있다”(재외 동포청 자료). 해외 한인교회 수는 어떠한가? 코로나 이전에는 약 5500개였으나 지금은 약 5,000개로 줄었다. 이중 3,000여 교회가 미국에 있다. “일본인은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으면 회사를 차리고 중국인은 식당을 개업하나 한국인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 한인교회는 세계 어디에나 있다. 그간 이민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넘어 한인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감당해왔다. 즉,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고국 소식과 현지 적응정보를 주고받으며 일자리도 소개받는 등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부터 이민교회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주된 원인은 이민인구가 줄어들고 교인들도

었다”(미션퍼스펙티브, 서울: 도서 출판 예수전도단, 2000, 186쪽). 전 세계에는 현재 5천 개에 헤아리는 이민교회와 7백만이 넘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다. 저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은 마치 민들레 씨처럼 온 땅에 흩어져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평생 이국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선교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흠뻑려 저들을 열방으로 보내심은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였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을 부르고

위하여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했다. 그렇다. 여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과테말라 한인교회이다. 본 교회는 김상돈 초대 담임목사와 함께 “전교인 선교사화”를 부르짖으며 지난 34년을 달려왔다. 구체적으로 광장 선교에 전 교인을 동참하게 하고, 각 소그룹별로 선교지역을 정하여 선교하게 하며, 직장이 실제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훈련하였다.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선교사로서 현지인 어린이에게 복음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선교적 책무는 너무나 크다. 이민교회 속에 성도들은 타문화 적응 훈련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저들은 현지 나라의 비자와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그 나라와 민족의 관습과 세계관을 잘 습득하며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2세, 3세들의 고급 선교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외동포 가운데 10%만 동원해도 70만 명의 선교 정병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지금이라도 성장지상주의를 탈피하며 교회 중심의

그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교회 내 구역이나 목장조직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현지인 사역을 위해 선교목장으로 세워야 한다.

맺음 말

철학자 파스칼(Blaise Pascal)은 인간을 중간자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인간이란 “과거와 미래의 중간 즉, 현재를 살아가고 시간적 중간자이다. 하늘 위도 아니고 땅속도 아닌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공간적 중간자이다. 천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형



전할 수 있도록 실행되게 하였다. 본 교회 자체 파송 전문인 선교사가 44명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인교회들과 연합해서 신학교도 세우고, 선교사들의 비자문제 해결 및 단기 선교 팀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현지인 목회자 연합회, 전국교회 연합회 등과

선교에서 선교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외 한인교회는 우리 동포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 현지 나라의 백성들을 품는 영적 군함이 되어야 한다. 이제 는 교회가 선교사 한, 두 사람

태적 중간자”라고 설파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어떠한가? 저들은 모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고 있는 문화적 중간자인 셈이다. 따라서 이민자는 양쪽 모두의 문화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 문화에도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두 문화를 객관적이고 비

해외 한인교회는 약 5,000개로 추산한다.
해외 한인교회는 선교를 위한 전략적인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해외 한인교회가 선교적으로 거듭난다면 선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질 것이다. 이에 한인 세계선교도 뭔가 혁신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 온 구태의연한 선교패러다임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선교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고령화되고 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 및 괴리감, 다름 등 내부적 여러 요인이 많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이민교회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계신다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응답해야 한다. 유대인의 게토처럼 우리끼리만 울타리 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부수고 세계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략적인 교두보로서 포문을 열 것인가?

협력하여 기도운동과 복음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같은 제도와 구조 속에서 고착화의 폐단을 피하기 위해 담임목사와 합동 직들은 조기 은퇴를 한 후 선교사로서의 사역 전환을 이루었다. 김상돈 목사는 현재 월드비전 신학교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의 거룩한 변화를 위한 “나바세바”(나를 바꿔 세상을 바꾸라!)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패러다임으로는 세상을 앞질러 갈 수 없다. 디아스포라 교회 자체가 통째로 선교적 사명을 받아야 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5,000여 해외 한인교회 중 1/10인 500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나 과테말라 한인교회처럼 선교적 헌신을 하는 것이다. 둘째 나머지 이민교회들도 크고 작고를 떠나 교회 재정의 1/10을 타 문화권 사역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셋째 2세나 3세 중 현지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고급 인력을 전문인 선교사로 허입하며

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로써 이민교회는 이런 문화적 중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방향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아 저들을 보듬는 사역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민교회는 한인의 울타리를 넘어 현지 나라와 민족까지 품는 본질에 전착하여야 한다. 그 핵심은 선교이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다(마5:13-14). Jrsong007@hanmail.net

1. 해외 한인교회의 실상
2023년 기준 해외 한인 수는 “193개국에 7,081,510명이다. 나라별로 보면 순위가 미국이 260만 명, 중국이 210만 명, 일본 80만 명, 유럽 65만

2. 해외 한인교회의 존재 의의
랄프 윈터 박사 (Ralph D. Winter)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네 가지 메카니즘으로 *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감 * 선교적 의도 없이 비자발적으로 나감 * 자발적으로 나눔 * 비자발적으로 나눔을 들

3.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모범 사례
스위스의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인 에밀 브루너(Emil Bruner)는 “불꽃은 타오르기

4.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선교방향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미국, 중동선교전략가)

36강 사울 (사무엘상 8-15장) 3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사울이 암몬과의 첫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울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삼상 11:6,13).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삼상 11:12)라며 모두들 ‘사울 추종자’가 되어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삼상 11:15). 사울은 사울대로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는 승리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지만 죄인인 인간은 이제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 승리를 주신 하

나눔을 봐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승리의 주체’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백성이 왕으로 만들어 준 왕이 계속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백성은 다른 왕을 찾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 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부끄러운 정도로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음으로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으로 구원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말합니다(삼상 12:6-9,11).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이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삼상 12:12) 하므로 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삼상 12:19)라고 합니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에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라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 두려운 것이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자’인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살려만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며

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삼상 12:20-25)며 피를 토하듯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교육’으로도 ‘설교’로도 ‘잔소리’로도 ‘몽둥이’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의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합니다(삼상 13:3-5).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 군대는 공격보다는 방어에 급급하고 숨고 떨며 심

지어 도망을 치는 자들도 생겨 납니다(삼상 13:6-8). 바로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라면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상황이 다급해지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주관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러 버립니다(삼상 13:9).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아무나 이방신을 섬기고 대하듯이 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후 사무엘이 와서는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삼상 13:10-13).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한 가정의 권세 (삼상 1:1-14) 찬305장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하나님은 한 가정의 한 여인의 한 아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마음 아픈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씨앗이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저씨 같은 작은 단위를 주목하십니다. 엘가나 가정의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운명 탓으로 돌리기 쉬운 불임 문제를 한나

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영혼을 쏟는 기도는 하나님 은혜를 담은 그릇입니다. 단지 아들 하나 갖고자 하는 소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강렬한 소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벌써 그 시대에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화 심정을 통한 기도 (삼상 1:15-28) 찬482장

하나님의 작정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나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 하나님만 상대한 골방기도입니다. 외식에 빠진 시대라 할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 상대해 기도했습니다. 골방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산제물입니다. 둘째, 영혼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주께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은 진실과 진실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대답에 엘리가 감동을 받고 축원하자 그대로 믿고 간 그 날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는 심정으로 성경 약속을 엮어 놓고 믿는 것입니다.

수 한나의 영적 체험 (삼상 2:1-10) 찬73장

한나는 아들을 얻은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얻은 구원에서 더 온전한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주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는 참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셋째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파하시느 하나님이라

침내 열방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본 것입니다. 구약 인물이지만 수천 년 후에 성취될 그리스도의 구원 성격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밝은 시대인 신약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배운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겠습니까? 이 복된 자리로 나갑시다.

목 예배를 귀하게 여기자 (삼상 2:11-21) 찬34장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로 이어지는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한 순종의 섬김을 보십니다. 한나에 의해 바쳐진 사무엘은 아이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서투른 아이의 섬김이지만 그것을 흠양하셨습니다. 중심에 진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둘째, 산 제사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주여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드렸나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사무엘은 장차 이를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진 이 시대에 살아도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함으로 주께 끝까지 쓰임 받는 성도가 됩시다.

금 하나님의 작정 (삼상 2:22-36) 찬416장

엘리 두 아들의 고집이 심판받을 증거임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여호와에 대한 태도 따라 갔으셨습니다. 엘리가 받은 은혜를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29-30) 둘째,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냅니다. 두 사람은 성전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며 성전 수종을 드는 여인과의 음행이 그를 죽이기로 한 하

나님의 작정을 드러낸 것입니다.(25) 그 후 그들은 전사했습니다. (34) 셋째,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통해 견고한 집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새 역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 제사장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고 확신합시다.

토 엘리의 죄 (삼상 3:1-21) 찬338장

엘리의 죄는 제물로 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 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첫째, 계시를 받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은 계시를 받는데 잠에 취해 있는 엘리의 대조적 모습은 계시를 받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합니다. 둘째, 외사에서 나왔습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았는 표현은 제사장 직무의

태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질한 순종의 마음만이 외사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육체 소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은 엘리가 육체 소욕에 사로잡힌 증거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거듭난 마음을 잘 지킵시다.

교회음악 이야기(68)

대강절 찬양 "구속의 계획"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로 기독교 상담 분야의 별이라고 인칭 된 레리 크랩(Larry Crabb 1944-2021) 이 쓴 "영적 가면을 벗어라." 마지막 장을 보면 그가 피부암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던 가운데 고백하는 고통스러운 치유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60대 초반에 피부암 진단을 받고 어깨와 등에 항암 연고를 바르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항암 연고를 바른 어느 주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그 고통은 항암치료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고통이 심하겠지만 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이유를 그가 발견하며 계속된 고통의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피부에 암이 퍼져 있는 곳에 잠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앞으로 길고 치명적인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피부에 암 덩어리가 모두 다 타버리면 그 밑에 아기의 살과 같이 새살이 돌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속에 있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불태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윤임상 목사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위해 준비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요1: 23) 본문에서 골짜기, 산,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재 삼아 작곡자 바바라는 이 안테를 음악으로 표현할 때 기타리듬의 단조와 소망의 빛에 장조를 조합하여 대강절의 의미를 잘 나타내려 했습니다. 특히 가사에서 주는 몇 개의 문장들이 오늘의 대강절에 간직해야 할 큰 교훈을 부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작은 마구간의 구유, 그리고 작은 손 안에 큰 권능." 탄생의 신비 속에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말입니다. 이 안에 기억해야 할 큰 교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랑,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켜야 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2024 성탄의 계절, 대강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대체로 메시아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다시 심판 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바로 인지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레리 크랩이 겪었던 고통을 비유 삼아 필자는 미국의 교회 음악 작곡가 바바라 클라크(Barbara Clarke, 가 만든 안테 "구속의 계획(Redemption's Plan)"을 소개하며 대강절의 참 교훈을 되새겨보려 합니다.

이 안테는 이사야 40장 3-5절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 임이 말씀하셨느니라" 을 중심으로 가사가 전개되어 대강절의 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 가운데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전반부에 펼쳐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재앙 등을 나타내고 이어 40장부터는 이들에게 내릴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예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테 가사의 중심이 된 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며 아울러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 사역을

C.S. 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본질적인 사랑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강절 시편을 지내며 레리 크랩이 경험했던 새살이 돌아오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교훈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진정한 회복을 기대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깊은 진리를 발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 머물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나타난 위대한 사랑과 작은 손안에 나타나는 큰 권능의 진실을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iyoon@wmu.edu



"사랑은 기도 사랑은 답입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운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으뜸병원, 헤민병원
헤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검진내용

- ♣ 뇌 MRI ————— 중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중 선택
- ♣ 수면 위내시경
- ♣ CT 촬영 (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갑상선 검사. T3, T4, TSH
(갑상선 항진, 저하)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간기능,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등
혈액검사 및 기본검사
- ♣ 산부인과 질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진비용

~~\$950~~ **\$410** (\$100불 할인예약증)
(환율변동) \$310불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강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문의전화 T.(213)341-5123

이용규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Faith Theological Seminary
종교교육학 박사



60여년 목회, 2016년 소천
(LA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 시무)

강해설교집 목록

- | | |
|--------------------|---------------------|
| 제 1권 주의길을 예비하라 | 제 22권 승리의 신앙생활 |
| 제 2권 아가서강해 | 제 23권 선한목자와양 |
| 제 3권 너희구원을 이루라 | 제 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
| 제 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 제 25권 피할수 없는 하나님 |
| 제 5권 썩지 않는 면류관 | 제 26권 빌립보서강해 |
| 제 6권 스가라서 강해설교 | 제 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
| 제 7권 위기를 이기는 길 | 제 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
| 제 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 제 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
| 제 9권 롯기서강해 | 제 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
| 제 10권 새천년에 할 일 | 제 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
| 제 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 제 32권 간추린 신학 |
| 제 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 제 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
| 제 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 제 34권 위대한 사랑 |
| 제 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 제 35권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
| 제 15권 하늘의 시민권 | 제 36권 큰 산아 평지가 되라 |
| 제 16권 진정한 평화 | 제 37권 경건한 신앙생활 |
| 제 17권 하나님의 약속 | 제 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
| 제 18권 십자가의 도 | 제 39권 그리스도의 승리 |
| 제 19권 새벽을 깨우라 | 제 40권 갑절의 영광 |
| 제 20권 인간의 복된 시명 | 제 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
| 제 21권 인생의 바른 길 | 제 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성탄절 설교”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제 38권에서 발췌

본문(Scripture) 누가복음(Luke) 2:1-7

제목(Topic) **성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God's Preparation for the Birth of Christ)

[하나님의 성탄 준비]
[God's Preparation for Christmas]

- | | |
|---|---------------|
| (1) 민족을 준비하심
(Prepares the nation)
(유대인의 특징)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Jew) | 1-3 |
| (A) 만민 중에 미천함
(Lowly amongst the nations) | 신(Dt) 7:6,7 |
| (B) 많은 연단을 받음
(Received much training) | 사(Isa) 43:1,2 |
| (2) 인물을 준비하심
(Prepares the person)
(마리아의 특징)
(Special characteristic of Mary) | 4-5 |
| (A) 정결을 지킨 처녀
(Kept her purity) | 사(Isa) 7:14 |
| (B) 주의 뜻에 순종함
(Obeyed the Lord's will) | 눅(LK) 1:35,38 |
| (3) 장소를 준비하심
(Prepares the location)
(예수께서 나신 곳)
(Place of Jesus' birth) | 6-7 |
| (A) 베들레헴에 나심
(Born in Bethlehem) | 미(Mic) 5:2 |
| (B) 천한 구유에 나심
(Born in lowly manger) | 고후(2Co) 8:9 |
| (결론) (Conclusion) | |
| (A) 초림을 믿고 영접하라
(Believe and receive the First Coming) | 요(Jn) 1:12 |
| (B) 천한 구유에 나심
(Stay awake and long for the Second Coming) | 히(Heb) 9:28 |

설교본문: 누가복음 2:1-7

- 1) 그 때에 가이사 아우구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 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 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서도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설교집신청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

LA 동부장로교회 [담당목사: 김정오]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동부장로교회 관리인 구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해주실 분을찾습니다.



사레비와 2 Bed 사택 제공

연락처: 213-383-3261
주 소: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빛나라 북한 만나선교 후원회

Arise Mission Church - Manna for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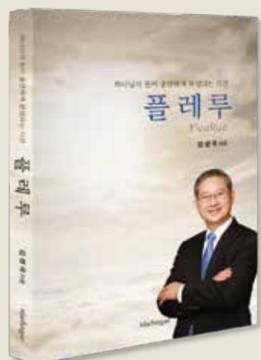
북한 가족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이미 추위가 시작된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빛나라 선교교회 (탈북민 교회)에서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빛나라 북한 만나선교 후원회 (Manna for North Korea)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325199505638
전화번호: (310) 508-3899

Hisfinger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견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FleuRuz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